

# 무화과

## Prologue

가끔, 속이 메스껍지도 않은데 구역질이 날 때가 있다. 뿌리를 알 수 없는 구역질이 목을 타고 올라온다. 하지만 여태껏 그것 때문에 실제로 토를 한 적은 없었다. 무언가를 토해내고 싶는데 토해낼 게 내 안에 없었다. 그 어떤 것도 속 시원하게 게워내지 못하는 이 헛구역질은 항상 답답한 여운만을 남길 뿐이었다.

한 날 나는 이 답답하고도 기이한 현상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고 반갑게도 양투안 로캥탱이라는 한 동지를 만나게 되었다. 사실 그는 소셜 속 인물로 실존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이 헛구역질이 어딘가에서 이미 다뤄진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양투앙 로캥탱, 그는 자기 나름대로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파악해놓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는 이 기이한 구역질이 끝내 뭘 토해내고 싶어 하는 건지 알아낸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이 헛구역질이 끝내 토해내고자 하는 건 공

허감 그 자체였다.

‘나는 왜 나이며, 나를 비롯한 이 세계는 왜 존재하나’와 같은 회의적인 질문들이 끊임없이 서로 겹쳐가며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이 막히면 구역질과 함께 공허감이 목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다. 그 어떤 존재의 의미도 토해내지 못하는 헛구역질이.

그러나 로캥탱은 이렇게 헛구역질을 하는 게 마냥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존재에 대한 의문을 외면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와 동지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의 생각에 십분 동의한다. 사소한 현실 문제에만 집착하며 그것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건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이다.

로캥탱과 나는 공허감과 직접 마주하기에 적어도 이 땅 위의 기만자들보다는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언젠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불변의 이유, 즉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모든 존재를 정당화하는 진리를 통해 난 비로소 공허감에서 해방될 것이다. 헛구역질에서 벗어난 안식이 날 기다리고 있다. -후만

## 1장. 진리

### 1.

후만은 물때가 잔뜩 낀 거울을 응시하고 있었다. 물때 사이로 핏기가 퍼렇게 드러난 창백한 피부와 제멋대로 자란 거친 수염이 보였다. 그는 그것들을 영광의 상처라 여겼다. 부질없는 세상에서 격리된 자에게만 허락된 상처.

후만은 세상일에 흥미가 없었다. 세상일은 언제든지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은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런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게 그런 부질없는 것들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그건 바로 그를 비롯한 세상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 이른바 진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진리를 통해 자신을 괴롭히는 거대한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점차 더 강렬한 공허감이 찾아올수록 그것의 답이 되어줄 진리에 더 집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를 둘러싼 세상에서 진리라는 말은 어색한 말이 되어버렸다. ‘진리를 찾는다’라는 말은 더더욱 그랬다. 그 말들은 그저 가끔씩 자극적인 홍보 문구나 심리 표현의 일부

로만 쓰일 뿐이었다. 그의 주위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 안달하는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다들 눈앞에 놓인 현실 문제에만 매달릴 뿐.

그렇기에 그는 무언가가 제대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모든 학문은 진리를 찾는다는 목적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그 뿌리가 유치하다고 그런 게 어디에 있냐며 부정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다. 후만은 그들을 그저 현재만 살아가는 흐릿한 환영과 같은 존재들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렇다고 후만이 자신의 길에서 이렇다 할 해답을 찾은 것도 아니었다. 진리를 찾겠다고 나선 뒤 지금까지 별 다른 소득이 없었다. 그래서 여태 그를 괴롭히는 공허감이 오히려 커지면 커졌지 줄어든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스스로가 공허감을 외면하는 사람들보다 낫다고 자위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처럼 되지는 않겠다며 다짐해왔다.

그러다가 최근 후만은 그동안 자신이, 그리고 온 세계가 진리를 영동한 곳에서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 후만은 아주 잠시라도 그를 엄습하는 공허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다. 또 더 나아가 그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혹은 깨달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 강렬하게 비웃기도

했다.

그는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찾은 날, 블로그에 자신의 포부를 장엄하게 적어 놓았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기로 했다.

2.

---

2017-02-23

선언문

진리는 단순하다.

파랑새는 집에 있었다.

진리를 찾기 위해 우주로 눈을 돌려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그저 점차 더 복잡해지는 현상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뿐이다. 그리고 결국 그 현상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우주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외부 세계가 모두 그렇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상들을 분석하다 보면 항상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들려오는 건 깊게 파고 들어간 자들의 흐릿한 메아리뿐이다. 그리고 그 흐릿한 메아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공명도 일으키지 못한다.

진리는 절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없다. 그들만의 리그가 된 이후부터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와 가깝고 단순해야 한다. 빈곤하여 지식을 얻어낼 여유가 없는 사람까지도 얻어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그리고 그 얻어낸 것을 만물에 적용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우리는 한참 잘못된 곳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제 다들 파랑새가 있는 곳과는 일절 관계 없는 아주 반대편으로 가버렸고 그곳에서 결국 탈진해버렸다. 그들은 이내 진리란 없다라고 천명하게 될지도 모른다. TOE(Theory of Everything)라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대부분이 혼돈에 몸을 내맡겨 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상황에서 선언하고 싶은 것은, 진리는 우리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부는 바로 우리의 집단 무의식이다.

집단 무의식은 분리된 한 사람만의 의식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경험으로 생겨난 공유된 무의식이다. 집단 무의식에는 모든 인간의 지식이 흘러 들어가고 그 기억들이 다시 반대로 작용하여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다.

세계가 분리되어 있을 시절 각 지역에서 공통된 형식이나 의미를 갖고 나타난 신화들이 집단 무의식의 근거다. 집단 무의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분리된 개개인 의식에서는 그 근원을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나를 괴롭히는 공허감이 바로 그중 하나이다. 그것의 근원은 집단 무의식에 있다.

.....

---

“첫 글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후만씨의 연구를 흥미롭게 봐왔습니다.”

옆자리의 남자가 후만에게 익숙한 내용의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누구시죠?”

후만은 갑작스레 말을 걸어온 남자에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그문트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쇼펜이라고 합니다. 꿈 전문가죠.”

말을 끝내자마자 쇼펜은 능청스럽게 후만에게 악수를 건넸다. 후만은 자신 앞에서 기다리는 손을 바라보기 무안하여 얼떨결에 악수에 응했다. 그런데 손이 맞닿은 순간 느껴진 차가운 기운에 흠칫했다. 그의 손은 얼음장 같은 후만의 손보다도 훨씬 더 차가웠다.

후만의 눈은 쇼펜의 창백하고 가느다란 손가락과 팔을 타고 그의 얼굴에 이르렀다. 그러자 쇼펜은 후만을 향해 짧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치 거울을 보고 연습한 듯한 작위적인 미소였다. 그리고 그 미소는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눈빛 때문에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에 후만은 직감적으로 쇼펜이 사이비일 것이라 생각했다. 이 넓은 카페, 차고 넘치는 자리에서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것부터 수상했다. 그는 이상한 전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서둘러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쇼펜이 자신의 말라빠진 사지를 아예 후만 쪽으로 틀고 손사래를 쳤다.



“아, 아닙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신 것 같으니 바로 말해야겠군요.”

후만은 짐 싸던 것을 멈추고 쇼펜을 쳐다보았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후만씨의 루시드 드림 연구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 연구라뇨?”

“이 선언문. 직접 작성하신 거 맞죠? 이 이후의 글도요.”

쇼펜은 방금 전 후만에게 내밀었던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 제가 쓴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걸 쓴 걸..”

“실례지만 뒷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도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후만씨가 저희 연구소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연구길래 남 뒷조사까지 하는 거죠?”

“후만씨가 하는 것과 비슷한 연구입니다. 자각몽을 통해서 점점 더 깊은 무의식에 도달하는 거죠. 후만씨는 그 과정을 통해 결국 집단 무의식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거구요. 맞죠?”

“네. 일단은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진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막연한 가설에 불과하지만..”

“집단 무의식에 뭐가 있을지는 저희도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곳에 도달하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겠죠. 후만씨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애초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증명도 아직인 건가요?”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건 이미 융이 말한 적이..”

“그 또한 가설에 불과하죠. 제가 묻는 건 실제로 그것을 증명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네? 증명하다니.. 어떻게 도달하지도 못한 집단 무의식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주를 연구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저 먼 우주에 나가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쇼펜씨는 집단 무의식과 외부 세계가 비슷하다는 건가요?”

“완벽하게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두 세계가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집단 무의식과 연결된 우리의 뇌는 소우주라 불리기도 하니까요.”

“두 세계가 그렇게 유사하다는 건 결국 집단 무의식 속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진리는 단순한 건데 그렇게 외부 세계의 복잡한 렌즈로 바라보면 찾고자 하는 걸 결국 못 찾을 거예요.”

“오히려 그 관점이 모순적인 것 아닐까요. 후만씨 말대로 진리가 모든 곳에 적용된다면 복잡한 곳에서도 적용되어야 하겠죠. 제 생각에 진리라는 건,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 외부 세계에나 내부 세계에나 모두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외부 세계에 진리가 존재한다면 왜 우린 점차 그것에서 더 멀어지는 거죠? 지금은 아무도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들 각자의 분야로 흩어져 각자만의 미래성을 쌓아갈 뿐이죠.”

“극과 극은 통한다고 흩어져 있던 각 부분들이 먼 미래에 합쳐질 수도 있죠.”

“그런 건 너무 막연한 기대예요. 말도 안 되게 먼 미래가 되어야만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진리가 아니예요. 진리는 지금 당장 우리 곁에서도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후만씨는 외부 세계를 그저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군요.”

“맞아요. 환상일 뿐이죠. 중요한 건 우리 내부에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내부 세계에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는 같은 것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그 진리가 단순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외부 세계에서 사용하는 복잡한 방법론을 들이밀고 싶지 않아요.”

“단호하시군요. 그게 고집이라 생각해본 적은 없나요? 그 고집이 후만씨 연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고집은 모순을 만드니까요.”

“고집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그쪽이 맞는지 제가 맞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고집을 부리는 건 쇼펜씨일 수도 있어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만약 저희가 후만씨 연구보다 한 발자국 앞서갔다면 어떨까요?”

“그건..”

후만의 말문이 막히자 쇼펜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희는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거의 다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에 진입하는 방법까지 알아냈죠.”

쇼펜이 말을 끝내자 둘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쇼펜은 후만의 얼굴과 책상을 두들기는 그의 손을 번갈아 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저는 그걸 증명하지 못했으니 결국 고집을 부리는 건 저라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연구소에서 왜 제 뒷조사까지 한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군요. 좋아요. 아시겠지만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준 차이가 존재하죠. 저희는 지금 높은 수준의 루시드 드리머를 찾고 있어요. 꿈, 즉 무의식 속에서 더 선명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요.”

“그 연구소에는 그런 사람이 없나요?”

“무의식이 점차 깊어질수록 그 속에서 자기 의식을 부여잡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집단 무의식의 경우에는 그게 더 심하구요. 저희 연구소 드리머들은 집단 무의식에 진입하는 거에 애를 먹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제 꿈이 어느 정도 깊이에서 이뤄지는지도 몰라요.”

“아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몰랐다면 후만씨를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저희 블로그 내용을 통해 후만씨가 상당히 깊은 무의식에서도 자각몽 상태를 유지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후만씨는 자각몽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블로그에 기록해 놓으셨더군요. 그 기록에 묘사된 이미지들을 분석하면 꿈이 구축되는 곳의 깊이를 알 수 있죠.”

“대단하네요. 근데 아쉽게도 전 평범한 개인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연구소는 제 가치관에 너무 과분하네요.”

후만은 아까 싸던 짐을 마저 싸기 시작했다.

“그렇군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니까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일단 명함은 드리고 가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쇼펜이 흰 명함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이번에도 후만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손이 무안하여 이내 명함을 받아 들고 자리를 떠났다.

### 3.

고집이라는 단어가 후만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쇼펜이 다녀가고 며칠 동안 후만은 지금까지 자신이 블로그에 적어온 글

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모순된 점이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다시 읽어보니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점들이 하나 둘 점차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처음에 후만은 쇼펜 때문에 사소한 문제들이 잠시 눈에 밟힐 뿐이라 여겼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순점들은 점차 더 크게 느껴졌다. 평소엔 생각지도 않았던 단점을 지적받으면 그것에 점차 신경 쓰게 되고 결국엔 트라우마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방법에 회의감을 갖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 공허감이 더 강하게 일었다.

그 공허감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후만에게 연구 방법이고 뭐고 당장 자신 앞에 진리를 갖다 놓으라 떼를 썼다. 후만은 그런 막무가내 앞에서 도저히 연구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꿈을 꾸더라도 자각몽 상태에 진입하기 어려웠고 진입하더라도 금방 균형이 깨져버렸다. 그리고 결국엔 잠에도 잘 들지 못하게 되었다.

후만은 점차 자신이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으며, 결국에는 자신 또한 평소 증오했던 기만자들과 별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는 비극적 결말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탐구한다는 추상적인 목적 아래 현실 문제를 도외시해왔기에 그 비극적 결과는 결국 삶의 탕진을 의미했다.

처음엔 식욕, 성욕과 같은 욕구를 채우더라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공허감을 채우기는커녕, 지금은 현실적 욕구를 채우는 것도 어려워졌다. 그는 이제 그 누구도 비웃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스스로가 더 이상 그 어느 쪽에서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특별..”

후만은 혼잣말을 하며 쇼펜을 떠올렸다. 쇼펜이 후만을 찾아온 건 어쨌든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쇼펜이 사실 진리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다. 그저 섭외를 위해 후만이 블로그에 무수히 써놓은 진리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뿐.

그들의 방식은 후만의 것과는 많이 달랐다. 쇼펜이 있는 지그문트 연구소는 각 분야의 엘리트가 모여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들로 꿈이나 집단 무의식을 해명하려는 곳 같았다. 모순을 인정하고 그곳에 가더라도 형이상학적 이론으로 가득 찬 과정 중에 후만이 있을 자리는 한 없이 초라해 보였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진리를 얻어낸다고 해도 과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스스로 이해하지도 못할 정체불명의 것을 진리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진다는 것



인가? 그건 신이 존재하니 그것을 믿으라는 사이비 제사장의 말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가 되고 싶은 건 그런 비루한 신자 따위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도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 찰 때면 자연스레 쇼펜이 준 명함이 아른거렸다. 그리고 결국엔 구석에 처박아 둔 명함을 다시 꺼내 볼 수밖에 없었다. 후만은 별 내용도 없는 명함을 만지작거리고 뚫어져라 쳐다보다 눈을 잠시 감는 것을 반복했다. 그런데 눈을 감고 만지다 보니 명함의 뒷면에서 오돌토돌한 감촉이 느껴졌다.

바로 명함을 돌려보니 뒤편에는 잉크로 복잡한 공식이 하나 쓰여 있었다.

$$F = G \frac{m_1 m_2}{r^2}$$

복잡해 보이는 수식은 곧바로 후만의 흥미를 일으켰고 그는 바로 노트북을 열어 키보드를 두들겼다.

## ‘만유인력의 법칙’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후만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굳이 이 유명한 법칙을 복잡한 수식을 통해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왜 명함 뒤에 이것을 썼는지 고민하는 것은 잠시 그를 그것보다 더 심각한 고민에서 끄집어내 주었다. 그리고 이내 후만은 전화를 들어 명함에 적힌 쇼펜의 번호를 꺾꺾 눌렀다.

“여보세요? 혹시 지그문트 연구소 맞나요?”

“드디어 전화 주셨네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블로그에도 글이 올라오지 않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고.. 그냥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명함 뒤에 쓰인 걸 보고요.”

“다행이군요. 역시 써놓길 잘했네요.”

“진리를 찾고 증명하는 과정은 복잡해도 진리 자체는 단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물론 만유인력의 법칙이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 또한 그렇게 누구나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단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후만은 말을 더 잊지 않고 잠시 뜸을 들였다.

“제가 아직 필요한가요?”

후만이 물었다.

“그럼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영역을 눈 앞에 두고 발이 묶여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진 후만씨도 알고 있겠죠.”

“머칠간 답답해서 어떤 꿈도 꾸지 못했어요. 잠도 못 잤구요.”

“일하기엔 최상의 상태군요. 아주 좋아요. 근데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전화 주신 번호로 메시지 하나 보냈어요. 확인하실 수 있나요?”

후만은 바로 컴퓨터를 켜서 쇼펜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게 뭐죠?”

“계약서입니다. 이제 같이 일하게 되었으니까요.”

후만은 계약서를 한 장씩 넘겨보았다.

“뭐가 많네요.”

“사족에 불과한 것들도 많습니다. 또 저희가 특수 집단이다 보

니 후만씨가 확인하고 가셔야 할 부분도 있구요.”

“특수 집단이요?”

“네. 저희 연구소는 사실 대외적으로 공개된 곳이 아닙니다. 연구소 주소도 공개되어 있지 않고 홈페이지도 없죠.”

“그래서 명함이 그렇게 조출했던 거군요. 쇼펜씨의 이름과 번호만 적혀 있는..”

“사실 쇼펜이라는 이름도 가명이에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모두가명을 사용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느라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겠지만 루시드 드림 연구는 그 어떤 연구보다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또 아직 미지의 영역인 만큼 무언가를 알아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충격도 크죠.”

“누군가는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 우리 모두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연구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토를 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큰 사건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쓸데없는 걱정을 늘어놓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가오신 거죠?”

“그만큼 후만씨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죠. 또 후만씨라면 반드시 저희와 함께 할 거라 생각했어요.”

“쇼펜씨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것 같은 느낌이네요.”

“하하 아니에요. 그래도 확인할 건 확인해야 최종적으로 함께 하는 거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비밀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들어온다는 건 비밀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블로그도..”

“네. 아쉽지만 블로그도 내려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쓴 것들 모두요. 그리고 앞으로도 연구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외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사실 보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건 괜찮아요.”

“이외에도 또 확인할 건 연구 초기에는 연구소에 머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소예요..? 연구소에서 먹고 잔다는 건가요? 그건 또 왜 그런 거죠?”

“저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꿈을 꾸는 겁니다. 실험 참가자 즉 루시드 드리머가 최대한 선명하게 자각몽 상태에 진입해야 하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컨디션 및 수면 관리가 중요해요.”

“생각보다 철저하네요. 혹시 계약서를 읽어보고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계약서에 자세한 사항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물론 페이지에 대한 내용도 뒷부분에 있구요.”

쇼펜의 말에 후만은 계약서를 뒤로 넘겨보았다.

“실망하지 않으실 정도로 넣어봤습니다.”

“매달 10만 달러.. 그것도 선입금이네요.”

“어쨌든 잘 읽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후만은 그날도 잠에 들지 못했다. 계약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저녁에 쇼펜에게 계약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 건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고 단신으로 타지에 나온 그의  
기에 연구소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외  
의 부분도 사족에 불과했기에 생각보다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  
었다.

문제는 결과가 어떻든 진리에 대한 그의 지론이 흔들렸다는 것  
에 있었다. 핵심 전제가 뒤흔린 만큼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균  
열이 생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언제든 진리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결론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는 끝없이 나아갈 수도 반대로 끝없이 추락할 수도 있었다.

그는 그렇게 공허감에 시달리며 꿈 없는 마지막 밤을 보냈다.

## 2장. 몽중몽

1.

연구소에 들어서자 쇼펜이 사이비일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단번에 달아났다. 연구소는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시설들로 가득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바삐 움직였고 드문드문 녹색 환자복 같은 것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녔다. 후만이 상상해왔던 꿈 연구소와는 달랐다.

“활기차죠?”

쇼펜이 말했다.

“그렇네요. 이렇게 넓을 줄 몰랐어요. 사람도 생각보다 많구요.”

“꿈과 관련된 실험을 한다고 하면 다들 단순히 뇌파만 쳐다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게 아닌가요?”

“물론 뇌에서 나오는 신호가 가장 중요하긴 하죠. 꿈은 뇌를 통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그 외에도 파악할 게 많아요. 저희는 다른 곳처럼 정신분석학이나 뇌과학으로만 꿈에 접근하지 않아



요. 다양한 관점으로 꿈에 접근하고 있죠. 음.. 특히 물리학이 중요해요. 신기하죠? 꿈에서 물리학이라니!”

쇼펜은 두 팔을 마구 흔들며 떠들었다. 후만은 그가 흔히 말하는 너드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렇네요. 꿈을 연구하는데 물리학이 왜 필요한 거죠?”

후만은 형식적으로 쇼펜에게 맞춰주는 질문을 던졌다.

“음 역시 아직은 이런 복잡한 방식이 와 닿지 않나 보네요. 그래도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비전이 공유되니까 들어보세요. 이제 부터는 동업자니까요.”

“죄송해요. 성의 없게 굴 의도는 아니었는데. 열심히 들어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가 서로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있어요.”

“관련되어 있다니. 꿈이랑 현실 세계가 이어져 있다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집단 무의식과 외부 세계 간에 접점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뽀콜리라는 걸 알고 있나요?”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뽀콜리를 통해 아주 먼 곳까지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죠.”

“맞아요. 워홀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곳을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통로입니다. 고차원 구멍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전에 제가 우리의 뇌도 작은 우주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요. 그럼 저희 뇌 속에서도 워홀이 형성돼서 외부 세계와 연결된다는 말인가요?”

“음 비슷해요. 그러나 우주에서 나타나는 워홀과 뇌 속에서 발생하는 워홀은 성격이 많이 달라요. 애초에 우주에서의 워홀은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뇌 속에서 발생하지도 못하죠.”

“상상이 잘 안 되네요. 물리학의 물자도 몰라서..”

“일단 중요한 건 우리 뇌에서도 아주 작은 워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질은 조금 다르지만요.”

“그건 이해했어요. 근데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그 워홀은 우주의 워홀과는 달리 실체를 전달하지 않고 일종의 파동만을 전달해요. 그래서 적은 에너지로도 형성될 수 있죠. 때문에 아주 미세한 크기로 우리 뇌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 의식은 이 미세한 워홀을 통해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뱀뱀을 거처 오가는 파동으로 집단 무의식과 개인 의식들 간에 교류가 이뤄진다는 건가요?”

“맞아요. 아직 완벽하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기존의 막연한 추측보다는 명확하죠. 이것이 다른 학문을 함께 들여와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러려면 양자 역학, 끈 이론이나 암흑 에너지와 같은 복잡한 개념이 줄줄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서 진저리가 날 거예요.”

“고마워요. 이 정도만 들어도 충분할 것 같네요. 그래도 집단 무의식에 대한 해명은 흥미롭네요.”

“다행이네요. 여기 생활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에도 흥미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숙소로 가서 짐을 풀죠.”

후만은 쇼펜을 따라가며 많은 시설들과 아마도 매우 고급 인력 일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다 문득 이전에 쇼펜이 말했던 이 연구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 연구 누가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후만이 물었다.

“아쉽게도 그건 기밀입니다. 그런데 살짝 알려드리자면 한 분이

거의 모든 연구비를 다 대고 계십니다. 참 고마운 분이시죠. 자 여기에요. 여기가 후만씨의 방입니다.”

쇼펜이 문을 열면서 말했다. 후만은 들어가서 방을 둘러보았다.

“1인 1실인가요? 좋네요.”

“사실 여기서 잘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연구할 때 자야 하니까요. 하하 웃기지 않나요? 잠자기 위해 출근하고 퇴근해서 깨어 있는 거죠!”

“하하..”

후만은 쇼펜의 너드식 유머가 불편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은 만족스러웠다. 그곳에서는 쉽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루시드 드리머들은 자기 세계가 확고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도 그렇게 선명하게 의식을 부여잡을 수 있는 거구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겐 자신만의 공간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곳의 숙소는 모두 1인 1실이랍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 카메라 같은 게 설치되어 있나요? 뭔가 실험이라고 하니 걱정되네요.”

후만은 구석구석 방을 둘러보다 쇼펜에게 물었다.

“하하 걱정 마세요. 연구는 이곳까지 미치지 않아요. 다만 양질의 루시드 드림을 위해 후만씨의 수면 시간을 약간 조정하는 경우가 생길 순 있어요. 그게 퇴근 후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순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이 방에 실험을 위해 뭔가 설치한 건 없습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뒷조사까지 했으니 걱정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도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짐 풀고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밥 먹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쇼펜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후만에게 그 넘치는 미소는 연구 성과에 따라 언제든 잿빛으로 변해버릴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것에 연연할 여유가 없었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연구에 대한 만족이어야 한다며 애써 생각을 지웠다.

후만은 준비된 녹색 옷으로 갈아입고 방을 나섰다.

2.

“요, 안녕”

한 남자가 식판을 들고 후만의 옆에 와 앉았다. 후만은 어색한 목인사로 답했다. 남자는 말라빠지고 기운 없어 보이는 후만과는 좀 달랐다. 그는 근육질에 덩치가 좀 있고 머리도 완전히 밀려 있는 흑인이었다.

“새로 들어온 드리머구나. 나도 드리머야. 와일드라고 불러.”

“아 네..”

“그냥 편하게 말해. 이곳에서 나이가 무슨 소용이야. 꿈에선 모든 경계가 사라지니까 나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와일드 또한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체격이 달라서인지 완전히 다른 옷 같아 보이기도 했다. 마른 후만에게 그 옷은 통이 과한 환자복 같았다.

“너도.. 루시드 드리머야?”

후만이 물었다.

“그럼. 여기서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은 다 루시드 드리머야. 그리고 이런 맛있는 식단을 먹는 것도 우리 드리머뿐이지.”

“식단? 우리만 이걸 먹는 거였어?”

“이 맛있는 음식들의 조합은 일명 ‘꿈을 위한 식단’이라고 불리지. 자각몽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나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거나 뭐라나, 어쨌든 여기서 우린 하루 세끼 이 맛있는 걸 먹어야 해.”

“온 지 얼마나 됐는데?”

“나도 온 지 한 달 밖에 안 됐어. 그래도 뭐 돈 많이 주고 너드들이랑 노는 것도 생각보단 재밌어. 운동 시설도 나름 잘 되어 있고.”

후만은 동지를 만난 것 같아 반가웠다. 조금 무례하긴 했지만 후만은 오히려 그렇게 다가와주는 게 좋았다. 그는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거는 타입이 아니었다.

“근데 그 머리는 왜.. 혹시 실험 때문이야?”

“대머리인 거? 이진 그냥 내가 좋아해서 한 머리야. 운동하다 땀 나면 그냥 수건으로 닦아내면 되거든. 시원하기도 하고. 그나저나 여기 와서 이상하다 느낀 거 없어?”

와일드가 머리를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물었다.

“이상한 점..? 꿈 연구소 치고는 규모가 크다는 거?”

“아냐 아냐. 싱거운 사람이네. 그게 아니라 왜 여기는 남자밖에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야지.”

후만은 순간 연구소에 온 뒤로 여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고개를 아무리 돌려봐도 여자를 찾을 수 없었다.

“정말 없네.. 그냥 우연 아닌가?”

“아냐. 웃긴 건 뭘 줄 알아? 여긴 여자 화장실도 없다는 거야. 왜인지는 나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로는 이 연구 스폰서 때문이라는데 다들 자세히는 모르는 눈치야.”

“좀 이상하긴 하네. 연구소에 여자가 찾아올 수도 있는데 여자 화장실이 아예 없다는 건..”

“그치? 아무리 기밀 연구소라 해도 이상하지? 별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요런 데서는 이런 쓸데없는 거에 신경이 쓰인단 말이야.”

“한 달 동안 여기 있으면 심심해서 그럴 수도 있지.. 생활은 어때? 사람들이나..”

“생활은 뭐 불편한 건 거의 없어. 사람들은 다 착하고 특히 연구자들은 그냥 학문에 푹 빠진 사람들 같아. 순수하다고 해야 되



나. 너 데려온 쇼펜 같은 사람들이랑 비슷해. 그냥 연구에 껌뻑 죽는 놈들이지.”

“그런 것 같아. 아.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어쨌든 앞으로 잘 부탁해. 생활에서나 연구에서나. 나는 쇼펜이 보자고 한 시간이 다 돼서 먼저 일어날게.”

후만은 식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근데 너 이름은 뭐야?”

와일드가 고개를 돌려 물었다.

“후만. 후만이라고 해.”

“알았어. 나중에 봐 후만.”

후만은 목인사로 간단히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근데 순간 후만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와일드에게 본명을 알려준 것이었다. 사소한 실수 같았지만 모든 게 낯선 곳이었기에 후만은 쇼펜에게로 향하는 발걸음을 서둘렀다.

3.

“그냥 본명을 말해버렸다구요?”

“네. 죄송해요. 얘기하다가 긴장이 풀렸는지..”

“그럼 후만이라는 이름을 여기서도 쓸 수밖에 없겠군요. 이미 수다쟁이 와일드가 다 말하고 다녔을 테니까요. 하하.”

“아.. 큰 일은 아닌 건가요?”

“음.. 가명을 쓰는 건 기밀 유지를 위한 사소한 약속이니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심하면 되죠. 또 여기서 후만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면 당연히 가명인 줄 알 거예요. 이전부터 후만씨를 알고 있던 사람은 여기에 없을 거니까요. 그냥 이제부터 후만이라는 이름을 가명이라고 여기세요.”

“네..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이제 일 시작인데 너무 풀 죽어 있지 마시구요.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볼까요? 여기 앞자리에 앉으세요!”

쇼펜이 후만의 어깨를 두들기며 말했다. 후만은 일에서만큼은 제대로 자신의 몫을 해내겠다고 다짐하며 쇼펜과 마주 보고 앉았다. 쇼펜은 손을 비비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주실래요?”

후만이 말했다.

“오! 그게 효율적일 것 같네요. 아는 한도에서 말씀해주세요!”

“음 일단 꿈은 질서 잡힌 의식과 무질서한 무의식 간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식 능력이 흐려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그걸 이상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거구요. 또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도 어려워서 마치 흐릿한 관찰자 시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후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쇼펜의 눈치를 보았다. 이에 쇼펜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말을 이어 나갔다.

“그런데 루시드 드리머는 그 흐릿한 꿈속에서 의식을 선명하게 부여잡을 수 있죠. 아 그리고 여기서 의식을 부여잡는다는 건 꿈속에서 무의식의 영향으로 흩어진 의식을 다시 수습해내는 걸 말하구요. 의식이 다시 본래의 질서를 갖추도록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자각몽 상태에 진입하게 되고 꿈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기도 해요.”

“정확해요.”

“그런데 무의식은 점차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무질서함이 강해지죠. 그래서 꿈에서 더 깊은 무의식으로 들어갈수록 자각몽 상태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더 깊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어떤 거라 생각하죠?”

“전 사실 그 부분에서 막혔는데.. 제가 생각한 방법은 꿈속에서 또다시 잠에 들어 더 깊은 꿈을 꾸는 거였어요.”

“몽중몽을 말하는 건가요?”

“네. 가끔 꿈에서 깬데도 여전히 꿈인 적이 있어서 그걸 반대로 적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각몽 상태에서 또다시 자서 꿈꾸는 걸 반복하면 점차 더 깊은 무의식으로 진입한다는 가설이죠.”

“근데 왜 거기서 막힌 거죠?”

“이상하게 자각몽일 때는 잠이 안 오더라구요. 잠을 자려 해도 꿈에서 어떻게 또 잠을 자라는 생각이 떠올라 매번 실패했죠. 애초에 처음부터 깊은 무의식에 던져진 경우는 있어도 제가 의도적으로 얇은 무의식에서 더 깊은 무의식으로 진입한 적은 없었어요. 뭐 그래서 결국 무의식의 저 밑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무의식의 밑바닥에 집단 무의식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네요.”

“오류요?”

“네. 집단 무의식이 개인 무의식의 밑바닥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오류예요.”

“그러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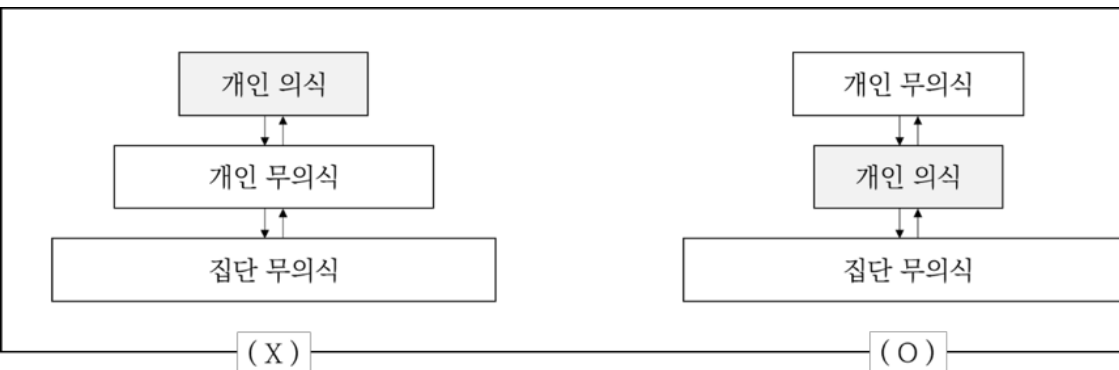
“집단 무의식은 개인 의식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개인 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에 기억을 동시 송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죠? 동시 송출이라니..”

후만의 말에 쇼펜은 일어서서 종이가 빼곡하게 붙어있는 벽으로 가 메모 한 장을 떼어왔다.

“이 도식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려나요.”

후만은 쇼펜이 가져온 메모를 받아 자세히 보았다.



“왼쪽이 틀리고 오른쪽이 맞다는 거죠?”

“맞아요. 개인 의식에서 인식하는 모든 것들이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에 똑같이 흘러가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집단 무의식에서 오는 것들이 개인 무의식의 저 밑바닥에서 왔다고 하기엔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이에요.”

“집단 무의식에서 오는 것들?”

“대표적으로 공허감이 있겠네요. 공허감에 시달린 적 있으시죠?”

쇼펜의 말에 후만은 공허감에 시달린 근 며칠을 떠올렸다.

“알죠. 너무 잘 알죠.”

“일반적인 욕망은 비교적 간단히 해결될 수 있죠. 밥을 먹으면 식욕이 해결되는 것처럼요. 이걸 그 욕망의 근원에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공허감은 그렇지 않죠.”

“맞아요. 공허감은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할 수도 채울 수도 없어요. 우리 몸에서 비롯되는 생리적인 욕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숫구치는 존재에 대한 회의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공허감이라는 게 개인 무의식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하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요.”

“저한테 좀 선명한 것 같네요. 식욕이나 성욕만큼..”

“사람마다 의식이 다르니 개인차가 생겨나는 건 당연하죠. 그래도 후만씨가 말한 대로 개인 무의식의 밑바닥은 혼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는 건 뭐든지 갈기갈기 해체되고 말 거예요.”

“그곳을 지나친다 전제하면 저를 괴롭힌 선명한 공허감은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거네요.”

쇼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애초에 제가 집단 무의식에 진입하려는 방법이 틀렸던 거군요.”

“아쉽지만 그런 거죠. 그래도 그런 시도 덕분에 깊은 무의식에 서도 자각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집단 무의식에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각몽 상태에서 집단 무의식에서 오는 걸 떠올리면 되죠.”

“공허감 같은 걸 떠올리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보니 꿈에서 공허감을 떠올린 적은 없었네요..”

“공허감을 떠올린다는 건 결국 그걸 불러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단 무의식으로 진입할 통로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구요.”

“아까 말한 뇌 속의 웹홀을 말하는 거죠?”

“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시도에서 루시드 드



리머들은 통로의 존재를 파악하고 얼마 안 가서 자각몽 상태에서 튕겨져 나왔어요. 마치 악몽에서 깬 것처럼 벌떡 일어나기도 했구요.”

“악몽을 꿀 정도라니..”

“또 공허감을 불러오는 게 자각몽 상태에 치명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감정이니까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집단 무의식이 어떤 곳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그게 그곳에 진입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흔히 인간의 상상력은 자유롭다 말하지만 사실 고정관념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과 같이 아예 새로운 차원에 대해선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곳은 기존의 고정관념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상상이 닿지 못하는 곳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자각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맞아요. 자각몽 상태에서도 꿈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건 어렵죠. 왜냐면 고정관념이 그걸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물리적 법칙에 어긋나는 조작을 마구 해대면 고정관념과의 이질감에 잠에서 깨게 되죠.”

“고정관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후만씨를 먼저 집단 무의식에 보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에 진입해서 그곳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파악해주세요.”

“실제로 그곳이 어떤지 알면 상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네. 후만씨가 선구자 역할을 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고정관념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고정관념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루시드 드리머들도 집단 무의식에 진입하는 게 가능해질 거예요.”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부담 갖지 말아요. 자각몽에 안 좋으니까요. 하하”

“그 말이 더 부담되네요. 일단 노력해볼게요.”

“지금 몸 상태는 어떨죠? 바로 실험을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데.”

“줄리네요. 어제도 결국 못 잤어요.”

“그럼 최상의 상태네요! 지금 바로 시작하죠. 따라오세요!”

쇼펜은 곧바로 일어서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 빠른 발걸음으로 후만을 인도했다. 후만은 쇼펜을 따라 흰 가운을 입고 분주하게 나도는 연구자들을 지나쳐 연구소 깊숙한 곳에 있는 방에 들어

섰다. 방은 기이한 모양의 관(棺)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다 뭐죠?”

“수면 캡슐이에요. 루시드 드리머의 자각몽을 보조하는 도구죠.”

“저도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네! 생각보다 좋습니다. 음 후만씨는 여기 누우면 되겠네요.”

후만은 쇼펜이 가리킨 수면 캡슐에 서툴게 들어가 어색하게 몸을 걸쳤다. 그러다 웬지 모를 따뜻함에 점차 자연스레 캡슐 안에 녹아들어 완전히 안겼다.

“아늑하네요..”

“캡슐을 최대한 자궁과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최상의 꿈 상태를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들이죠. 아마 집에서 혼자 꿀 때보다 훨씬 더 선명할 거예요.”

연구진들이 캡슐에 들어간 후만을 둘러싸고 이것저것 조작하기 시작했다. 캡슐 내부가 점차 따뜻해졌고 후만의 머리에 맞춰 투명한 헬멧이 씌워졌다.

“어떠세요? 느낌을 말해주세요.”

“느슨해요. 꼭 끼워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뇨. 꼭 끼워지면 수면을 방해하니까요. 지금 착용한 헬멧은 뇌파를 수신하고 수면과 자각몽에 도움이 되는 전파를 발생시키는 보조 장치예요.”

“정말 모든 게 자각몽을 위한 거네요.. 아까 먹은 밥이나 이 장비들이나..”

“믿음을 가지셔도 돼요. 분명히 평소보다 훨씬 더 선명할 겁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곧 있음 잠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작하죠. 조명 끄고 레코드 바로 시작해주세요.”

쇼펜의 말이 끝나자 연구실이 점차 어두워졌고 잠을 재촉하는 정적만이 가득해졌다.

4.

“요. 어땠어?”

와일드가 식판을 들고 오면서 말했다.

“아직 조금.. 뭔가 꿈에 취한 것 같아. 그렇게 선명한 건 처음이라.”

후만이 밥을 먹으면서 답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그것보다 집단 무의식에 진입했다고 들었는데 진짜야?”

“응. 나중에 브리핑이 있어. 거기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거야.”

“너드들이 신난 이유가 있었구만.. 그동안 막힌 연구가 한 번에 풀리겠네. 영웅이 된 기분이 어때.”

와일드가 후만의 팔을 툭 치며 물었다.

“아냐. 아직은 그냥 거기서 몇 발자국 걸은 것뿐이니까. 이번엔 오히려 선명한 거에 적응하느라 시간을 좀 많이 썼어.”

“그렇군. 근데 참 대단해 너드들이란.. 아쉽지 않아? 그렇게 선명한 꿈을 겨우 연구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는 게.”

“너는 어디다가 쓰고 싶은데?”

“당연히 즐기는데 쓰는 거지. 그게 원래 내가 루시드 드림을 꾸기 시작한 이유기도 하고. 자각몽에선 이 세상에서 못 하는 걸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어찌다가 연구에 지원하게 된 거야?”

“뭘 돈 때문이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직장에서 잘렸어. 돈을 벌려면 그나마 있는 재주를 활용할 수밖에 없더라고.”

“미안. 괜한 걸 물어봤네.”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돈이라도 벌 수 있는 게 어디야.”

둘 사이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후만은 자신이 아픈 기억을 건드린 것 같아 무안했다.

“그나저나 맛도 없으면서 잘 먹네.”

“이거? 맛은 없어도 몸 만드는 데엔 좋아.”

와일드가 자신의 한껏 부풀어 오른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원래 운동 좋아해?”

“그치 뭐.. 운동하면 정신이 맑아지니까. 또 이렇게 지루한 곳에선 선택지가 많지도 않아.”

“음.. 그건 그렇지.”

“그냥 여기선 운동하고 수다 떠는 게 유일한 낙이야. 근데 다른 드리머 놈들은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해서 말이 잘 안 통해. 다들 게임이나 하고 있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

“너는 그나마 나은 편이야. 적어도 대화는 이어지니까.”

후만은 와일드의 말을 듣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5.

“개인 무의식과는 다르게 집단 무의식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에서 자각몽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죠.”

후만은 한 장의 우주복 사진을 프로젝터에 띄웠다.

“저는 이런 우주복을 입고 있는 이미지로 스스로를 그 혼재된 경험들과 분리시켰어요. 꼭 이 이미지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개인 의식을 집단 무의식과 분리해줄 강력한 이미지가 필요하단 거예요.”

“우주복을 입고 있다 상상하라는 거지? 너무 단순한데?”

와일드가 손을 들고 물었다.

“또 그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곳의 환경을 조작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해요. 아까 말했듯 집단 무의식에는 다른 사람의 경

힘도 섞여 있어서 그곳의 환경을 조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은 자각몽 상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에요. 자각몽 상태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단순 자각몽 상태와 드림 컨트롤 상태가 있죠.”

쇼펜이 말했다.

“맞아요. 단순 자각몽 상태는 꿈이라는 것을 자각할 뿐 주변 상황을 조작하지는 않는 상태죠. 그저 구성된 꿈속에서 거니는 상태예요. 반면 드림 컨트롤 상태는 주위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죠. 여기 있는 루시드 드리머 대부분이 후자의 상태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집단 무의식 진입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두 상태 간에 차이가 있나요?”

한 루시드 드리머가 물었다.

“드림 컨트롤 상태는 주위의 무의식에 간섭하는 걸 전제로 해서 위태롭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특히 다른 사람의 경험이 혼재되어 있는 집단 무의식의 경우는 그게 훨씬 더 심해 지구요.”

“음. 진짜 우주복을 입은 사람처럼 외부 감각을 완전히 차단하



고 진입해야 하는 거군요.”

쇼펜이 거들었다.

“네. 그리고 뱀홀에 대한 이미지를 잘 형성해놓는 게 중요해요. 안정적인 뱀홀이 형성되어야 오고 가는 게 안정적이니까요. 그리고 집단 무의식에서는 항상 뱀홀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해요. 그게 끊긴다는 건 결국 자신에게 연결된 산소 튜브가 끊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뱀홀 없이 독자적으로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결국 이미지 문제군. 영상팀 이미지 준비하느라 고생하고 있겠네.”

와일드가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 이미 다 만들어졌죠. 지금 바로 옆방으로 이동해서 이미지 트레이닝할 수 있어요. 수면 캡슐도 다 준비해놨구요. 자 다들 시작하죠.”

쇼펜이 가볍게 박수를 치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다.

“또 시작이군. 가자. 후만.”

와일드가 일어나면서 말했다. 후만은 와일드를 따라 방을 나섰다. 다른 루시드 드리머들도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향했다. 옆방에는 각 루시드 드리머마다 하나씩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방에 들어서는데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았다.

“짧은 시간 안에 만든 건데도 엄청 디테일하네.”

와일드는 뒤편에 서있는 영상 제작자에게 엄지를 세웠다.

“자자. 다들 앉으셨죠? 영상은 그렇게 모니터로도 볼 수 있지만 가상현실 기어를 끼면 더 구체적으로 모든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이미지 구상에 더 효과적일 거예요. 다들 한 번 껴볼까요?”

쇼펜의 말에 드리머들은 하나 둘 기어를 머리에 끼웠고 후만도 눈치를 보다 따라 착용했다.

“이제 입체 이미지가 틀어질 거예요. 워홀이나 우주복의 분할된 이미지도 있고 그것들이 다 연결된 이미지도 있어요. 저랑 영상 팀이랑 여기 계속 있을 테니까 또 필요한 이미지가 있으면 바로 말해주세요.”

쇼펜은 자신의 할 말을 끝내고 구석의 빈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 뒤 수시간 동안 드리머들은 조용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 그리고 하나 둘 필요한 이미지에 대한 주문을 하거나 수면 캡슐로 들어가 이미지 트레이닝한 것을 실제로 꿈에서 불러내 보기

도 했다. 그렇게 반나절의 시간이 지나서야 트레이닝이 종료되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쇼펜이 말했다.

“이럴 땐 매달 10만 달러론 부족한 것 같아. 잠자는 게 일이 된다는 게 제일 최악이야.”

와일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수면 캡슐 다녀왔어?”

후만이 와일드에게 물었다.

“아까 다녀왔어. 꿈에서 형상화해보고 다시 와서 이미지 트레이닝 조금 더 한 거야.”

“고생했네. 밥이나 같이 먹을까?”

와일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옷매무새를 바로 하고 문밖으로 나가려 했다.

“아 잠시만요. 전달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다들 잠시 TV를 봐주세요.”

쇼펜이 방 안의 대형 TV를 켜며 말했다. TV가 켜지자 화면에서

몇 가지 이미지와 짧은 영상들이 계속 전환되는 영상이 틀어졌다.

“이 영상은 저희가 집단 무의식에 진입할 때 테스트로 가져갈 이미지들입니다.”

“뭘 위한 테스트죠?”

후만이 물었다.

“아까 후만씨가 말한 대로 집단 무의식에선 주위 환경을 조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루시드 드리머가 특정 이미지를 집단 무의식에 갖고 들어가서 투척하고 온다면 어떨까요?”

쇼펜의 질문에 방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그는 잠시 드리머들을 둘러보다 말을 이었다.

“저희 가설로는 집단 무의식에 그 이미지가 흡수된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우리가 집단 무의식에 인위적으로 기억을 흡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거죠.”

“드리머가 투척하는 거랑 우리 의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거랑 뭐가 다른데?”

와일드가 물었다.

“우리 의식에서 뱀흔을 거쳐 집단 무의식에 도착하는 기억들은 그 과정 중에서 파편화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선명한 이미지 그대로 집단 무의식에 가져가서 흡수시킨다면 그곳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거예요.”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건..”

와일드가 쇼펜의 말에 대꾸했다.

“집단 무의식엔 인류의 모든 기억이 흘러 들어가니 여러분들이 이 정도 실험을 한다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이 실험은 집단 무의식에 가져간 선명한 이미지를 그곳에 흡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와일드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큰 규모로 저희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수십억 인구 중에 단 몇 사람에 불과하니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오늘은 피곤하니 이 영상을 숙지하는 건 내일 하도록 하죠. 해산하셔도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쇼펜의 말이 끝나자 방안의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다. 화면을 노려보고 있던 와일드도 이내 일어나서 방을 나섰다. 이에 후만도 서둘러 일어나 와일드를 따라갔다.

6.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오늘은 더 맛이 없나?”

후만이 조용히 밥을 먹는 와일드를 보고 말했다.

“난 그 영상이 좀 이상해.”

“뭐 어떤 거? 아까 마지막에 틀어준 영상?”

“어.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음 이상한 거? 좀 폭력적이었나? 그렇다고 하기엔 화목한 가정도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화목한 가정? 난 그런 거 못 봤는데.”

“그냥 나도 자세히는 못 봤는데 엄마가 요리한 음식을 온 가족이 같이 먹는 장면이었어.”

“본 거 또 말해봐. 다른 거.”

“음. 성공한 사람들이나 위인들? 뭐 다른 건 더 기억이 안 난다.”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마크 트웨인, 벤저민 프랭클린, 톨스토이.. 내가 아는 건 이 정도..? 그 사람들의 업적이나 성공과 관련된 장면들이었어. 아 또

여자가 미인 대회 같은 곳에서 상을 받는 장면도 있었고.”

와일드는 후만의 말을 듣더니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았다.

“오늘따라 밥이 더 맛이 없네. 먼저 일어날게.”

“어디 가게?”

후만이 식판을 들고 일어서는 와일드에게 물었다.

“운동이나 하려고. 운동하면 잡념이 사라져서 좋아.”

“아 응. 이따 봐.”

와일드는 후만의 말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후만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일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아낼 수 없었다. 그저 와일드도 루시드 드리머니까 자기 세계가 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에 기분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런 편이었기 때문이다. 또 그런 성격을 날 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 여기기도 했다. 그래서 기분이 오락가락할 땐 당시의 감정에 더 질척됐다. 기쁠 땐 더 기쁘게, 우울할 땐 더 우울하게.

그런데 후만은 지금까지 와일드가 그런 날이 서있는 종류의 사람일 거라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근육질에 덩치가 커서인지 목소리가 굵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일드라면 거의 모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와일드도 다른 드리머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오락가락한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실 이렇게 남에게 흥미를 갖고 이해하려 하는 것은 후만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었다. 그 또한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와일드를 이해해보려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이곳에서의 무료함이 만들어낸 일종의 취미라 생각하게 되었다. 와일드가 운동이라는 취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나름대로의 취미를 갖게 된 것이라고.

그때 후만 근처에서 쇼펜이 식판을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쇼펜!”

후만이 쇼펜을 불렀다.

“오 식사 중이셨네요!”

쇼펜은 후만 쪽으로 걸어와 식판을 그의 맞은편에 내려놨다.

“그래도 오늘은 먹을만하지 않나요?”



후만은 쇼펜의 식판에 담긴 것들을 보았다.

“연구진들은 저희랑 다른 걸 먹지 않나요?”

“저는 드리머분들이랑 같은 걸 먹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요.”

“열정이 대단하네요.”

“저도 후만씨처럼 공허함에 많이 시달렸으니까요. 이 연구는 저 에겐 구세주나 다름없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될 거예요. 서로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모든 게 다 잘 풀려가고 있어요.”

쇼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연구가 잘 되어서인지 평소보다 더 짙은 미소였다. 후만은 이에 용기를 얻어 식판을 잠시 포크로 톡톡 건드리다 입을 열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오! 궁금한 게 생기셨군요. 어떤 거죠?”

“아니 사실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여기엔 왜 남자밖에 없는 거죠?”

“하하. 지금 깨달은 거라면 조금 늦었네요. 일단 여기는 단체 합숙 생활이라 남자만 있는 게 비용적으로 보나 업무 분위기로 보나 효율적이예요.”

“왜 그런 거죠?”

“음 일단 여긴 여자를 위한 시설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비용적으로 아끼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없으면 사사로운 감정에 단체 생활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적어지구요. 또 아마 아실 거예요. 여자들이 매달 예민해지는 날 있는 거. 그런 건 갈등요인이 되죠. 어쨌든 남자만 있는 연구소는 여러모로 효용이 좋아요.”

“저는 여자랑 같이 일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 그 편집된 영상들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 편집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영상.. 그건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 지나 영상 몇 개를 짜깁기한 거죠.”

“그러면 그냥 각자 자신이 원하는 걸 가져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후만의 말에 쇼펜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순식간에 쇼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후만씨. 혹시 그 영상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아뇨. 저는 그냥 연구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건 계약서에도 언급된 거 아니었나요? 연구 과정에 대해 서로 확실히 알고 가는 걸로.”

“아. 물론이죠. 그 영상은 음..”

쇼펜은 포크를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희로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희로애락이요?”

“네. 영상엔 다양한 감정들이 골고루 담긴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건가요?”

“사실 집단 무의식에 선명한 이미지를 흡수시켰을 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저도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 하셨던 말씀이랑 다르군요.”

“그래도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사소한 걱정일 뿐이죠.”

“근데 그게 희로애락이 골고루 있는 이미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이미지를 흡수시키면 집단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거예요. 증명된 건 아니지만요.”

“역시나 집단 무의식에 뭔갈 흡수시키는 건 위험한 게 아닐까요..”

“후만씨 이걸 꿈을 연구하는 실험이지만 그 기반은 현실에 있어요. 투자자는 매일 같이 성과를 재촉하고 있구요. 그리고 그것에 응하지 못하면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성립하지 못해요. 후만씨가 들고 있는 포크마저도요. 후만씨는 진리를 찾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만..”

“가설은 시험해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겁에 질린 반대에 걸려 넘어져야 하죠? 이곳이 애초에 기밀 연구소인 것도 그런 반대들 때문인데 내부에서도 그럴 수는 없어요. 후만씨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예요. 이 연구가 당신의 목표 달성에 희망이 되어주고 있지 않나요?”

후만은 쇼펜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후만을 이곳에 데려온 공허감은 그가 방금까지 느꼈던 겨우 ‘우려’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감정에 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또 돌아보면 그 우려조차도 와일드를 이해해 본다는 그답지 않은 생각에서 비

롯된 것이었다. 그에게 그런 부수적인 것보다 중요시해야 할 본래의 목적이 있었다.

“일단 저는 말씀하신 이미지 들고 갈게요.”

후만이 식판을 쳐다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우리에게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네요.”

“먼저 일어날게요.”

후만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쇼펜은 다시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7.

“오늘 트레이닝은 다음 실험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드리머들은 맥 빠진 눈으로 쇼펜을 쳐다봤다.

“먼저 다음 실험 전까지 수면 시간을 일시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다. 오랜만의 잠일수록 꿈이 더 선명하니까요.”

쇼펜의 말에 여기저기서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수면에 빠지기 직전까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직전까지 트레이닝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와일드가 물었다.

“수면 캡슐에 들어가서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다가 잠에 드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이걸 수면 학습처럼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머릿속에 새겨줄 거예요. 잠들기 전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꿈 속에서 재현되니까.”

“이미지 트레이닝할 목록에 예전에 말한 그 영상도 포함되는 거야? 집단 무의식에 가져간다는 그 영상.”

“그렇죠. 준비된 이미지나 영상들은 평소 봤던 것들이랑 똑같을 거예요. 이제 다음 실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새로운 이미지를 트레이닝할 필요가 없거든요.”

쇼펜이 와일드를 보고 말했다. 와일드는 잠시 아무 말을 하지 않다 이내 일어서며 입을 열었다.

“그거 참 다행이네. 이제 나가도 되는 거지?”

“네. 설명드릴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다들 수고 많았어요.”

쇼펜의 말이 끝나자 와일드는 그대로 방 밖으로 나가버렸다. 후만은 방을 나가는 와일드의 뒷모습과 쇼펜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쇼펜 또한 와일드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쇼펜도 와일드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문제가 집단 무의식에 가져갈 영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후만은 둘 사이의 문제에 자신이 휘말린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해졌다. 해결되지 않은 미묘한 감정은 선명한 꿈에 큰 방해가 되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방을 나서서 복도에서 걸어가고 있는 와일드를 따라갔다.

“와일드!”

후만이 와일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을 걸었다.

“후만. 운동하러 가는 중이었어.”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시간 돼?”

“무슨 일인데? 뭐 이제 남은 게 시간이지. 잠도 못 자니까.”

“저번에 영상이 좀 이상하다고 한 거, 그거 아직도 좀 걸리는 거야?”

후만의 말에 와일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따라와. 체단장에서 말해줄게. 이 시간엔 나 말고는 아무도 안 오니까.”

후만은 와일드를 따라 체단장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후만과 와일드는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 봤을 때보다도 어색했다. 그리고 이내 체단장 문 앞에 서자 와일드는 후만을 먼저 들여보내고 주위를 살핀 뒤 문을 닫았다. 후만은 체단장의 정적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마치 와일드의 세계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았다.

“여기 체단장은 꽤찮은 편이지.”

와일드가 정적을 깼다.

“뭐가 많긴 하네..”

후만은 체단장을 돌아다니며 갖가지 기구들을 쓸데없이 만져보았다.

“아까 물어본 거 난 아직 걸려.”

와일드의 대답에 후만은 잠시 멈춰 섰다.

“어떤 게 걸리는 건데?”



“전부다. 집단 무의식에 뭘 갈 넣으려고 하는 거 또 그곳에 넣으려고 하는 영상도 다 맘에 안 들어.”

“구체적으로 말해줘. 뭐가 그렇게 맘에 안 드는 건지..”

와일드는 체단장의 한 기구에 앉았다.

“넌 정말로 집단 무의식에 뭘 넣어도 아무 일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해?”

“그건.. 사실 나도 걱정했어. 근데 그게 기우일 거라는 생각도 해.”

“왜?”

“집단 무의식엔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기억들이 흘러 들어가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기억들이 아무리 선명하다고 해도 그 무수한 기억들에 묻히게 될 거야. 또 쇼펜 말로는 우리가 가져갈 영상이 최대한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안 끼치도록 설계됐다고도 하고.”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설계됐다는 게 뭔데?”

“그 영상엔 다양한 감정들이 균일하게 담겼다고 했어. 행복한 감정, 불행한 감정 모두 골고루.”

“행복한 감정? 누구의 행복한 감정?”

“사람들의 행복한 감정. 너도 이미지 트레이닝하면서 다 봤잖아?”

“아니. 그런 건 못 봤는데? 우린 서로 사람에 대해 다르게 생각 하나 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너보다는 넓게 생각하고 있어. 가명을 스스로 후만(Human)으로 한 너보다 훨씬 더 넓게.”

“답답해. 그냥 구체적으로 말해. 뭘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 영상은 이성애 남자, 특히 백인 이성애 남성들에게만 행복해 보일 뿐이야. 영상에선 오직 그들만이 행복의 주체지. 성적 소수자는 물론이고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나 여성을 위한 행복도 찾아볼 수 없어. 오히려 그들은 거기서 행복을 위한 도구나 소품이 될 뿐이지.”

“뭘 소리야? 이성애 남자라는 게 대체 뭔데?”

“말 그대로 여자에게 호감을 갖는 남자를 말하는 거야. 그 영상은 이성애 질서만을 정당화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비정상적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미지들로 가득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어때서. 당연한 거 아냐?”

“그게 왜 당연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있어?”

“왜냐면 그게 자연의 섭리니까.”

“아니. 그 자연의 섭리라는 건 대체 누가 정한 건데?”

“여러 사례들. 동성애는 후손도 남길 수 없고 위생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결국 에이즈 같은 전염병을 확산시키지.”

“스스로 후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부끄럽지도 않아?”

“뭘 소리야? 반박 못하겠으니까 겨우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반박할 가치도 없어. 인간이 언제부터 자연의 섭리를 따랐다고 그런 개 같은 소리를 하는 거지? 그건 그저 강자의 논리에 불과해.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섭리에 어긋난 것이라고 규정해버리지.”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야. 동성애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건 생물학적 지속성을 위협하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

“그래. 너한테 인간의 범위는 딱 그 정도인 거야. 그리고 너희가 만들어내는 그 좁은 정의에 인류의 절반 이상이 고통받고 있어.

이것 또한 사실이야. 물론 너희는 이걸 명백히 외면하고 있지만.”

“인류의 절반 이상? 오버 하지마. 어떻게 절반 이상이 되는 건데?  
그리고 너 말대로 인류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왜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지?”

“그만큼 너희가 자연의 섭리라고 만들어낸 구조에 모두가 얽매  
여 버렸다는 거지. 마치 너가 그 영상을 보고 아무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동성애는 정신병이라 낙인 지어지고 여성은 태  
어날 때부터 가부장제에 묶여서 남자들의 잣대에 의해 평가받고  
가치 지어지지.”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걸 동성애와 연결  
시키려고 하지마.”

“아니. 너는 하나도 모르고 있어. 동성애 문제와 여성 혐오 문제  
는 분리된 게 아니야. 이성애 남자 중심 구조는 스스로의 지위  
를 지키기 위해 동성애와 여성의 지위 모두 폄하하고 있는 거니  
까.”

“무슨 소리야?”

“한 마디로 너희는 인간의 가치를 따먹느냐 따먹히느냐의 기준  
으로 매긴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를 따먹을 수 있는 동성애 남  
성을 차단하고 여성을 너희가 따먹을 수 있는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혐오하는 거야. 그 케케묵은 이성애 남성 중심 구조에서 정의된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어.”

“그건 단지 네 생각일 뿐이야. 네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

“너나 이 연구소가 하려는 거야말로 남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거야. 그리고 동성애를 빼놓더라도 넌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걸 안다며 그런데도 실험에 동참하겠다는 거야? 알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그렇게 잘난 너가 쇼펜에게 말해보지 그래? 당장 영상을 바꾸라고. 만약 바꾸지 않는다면 너도 결국 그거에 동참하게 될 테니까.”

후만의 큰소리에 와일드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높았던 연성이 갑자기 사라지자 이전보다 더 큰 정적이 체단장을 가득 채웠다. 후만은 갑자기 찾아온 정적에 스스로도 놀라 와일드의 눈치를 보았다. 그러다 그도 이내 와일드와 같이 고개를 떨구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영상은 바뀌지 않을 거야.”

와일드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걸 어떻게 알아? 저들이 그냥 모르는 걸 수도 있잖아. 내가

그 영상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 것처럼.”

“그 영상은 스폰서가 정해준 거니까. 그리고 너도 알 거야. 이 연구는 그 스폰서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여기 연구에 정신 팔린 너드들은 그 스폰서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

“스폰서? 스폰서가 뭐 하러 그런 큰돈을 들이면서까지..”

“그런 큰돈을 들이면서까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젠장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후만. 그 개 같은 이성애 질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인류의 절반 이상이라고.”

“지금 스폰서가 그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해 그런 영상을 주문했다는 거야?”

“그래. 계속 그 구조를 유지해서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착취할 생각인 거라고.”

“말도 안 돼..”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너가 직접 쇼펜에게 물어봐. 가져갈 영상을 바꿔 달라고.”

“왜 그걸 나한테 넘기는 건데? 그거에 불만을 가진 건 너잖아.”

“난 그 영상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거야.”

“나간다고? 어떻게 나가겠다는 건데?”

“왜 못 나가지? 여기서 너를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건 없어. 너 스스로 만들어낸 족쇄일 뿐이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너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계속 연구를 할 거야. 너가 싫어하는 방식 그대로.”

“적어도 난 동참하지 않아. 그리고 또 그걸 묵인하지도 않을 거야.”

“무슨 소리야? 여기 일을 발설하겠다는 거야?”

“그래. 여기서 있었던 일 모두 다.”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난 당장이라도 너의 계획을 쇼펜에게 말해버릴 수 있어.”

“난 너가 진리를 찾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넌 이 관문을 넘어야 할 거야.”

“왜?”

“이건 모든 인간이 부대끼고 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후만 널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은커녕 인식조차 안 하고 있지. 너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야. 그게 진리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영상 문제에서 너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는 진리 문제와 직결될 거야. 진리는 어디에나 적용되어야 하는 거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만약 너가 이곳에서 결국 진리를 찾아냈을 때 그게 너가 걸어온 길과 너무 다르다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걸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겠다는 건 아니지?”

후만은 할 말이 없었다. 목구멍이 텅 하고 막힌 것 같았다. 그는 진리를 찾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오직 진리를 찾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경주마처럼 달려왔다. 그는 또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 어불성설 그 자체였다.

그래도 진리를 발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에 적용할 거란 어렴풋한 생각을 하긴 했었다. 와일드의 말처럼 그는 항상 진리를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진리는 평범한 사람은 이해하고 적용하지도 못할 그들만의 금자탑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건 쉽게 이해되고 모든 것들에 적용되는 만인의 지혜였다.

“어쨌든 난 오늘 나갈 거야. 만약 너도 나갈 생각이 있다면..”

그때 체단장의 문이 열렸다.

### 3장. 바벨

1.

“와일드는 스파이였어요.”

쇼펜이 덤덤히 말했다.

“우리 얘기를 듣고 있었나요?”

“아뇨. 요즘 와일드가 연구에 비협조적이었던 건 후만씨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뒷조사를 했고 배후에 반대 집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반대 집단이요?”

“네. 저희는 반대 집단이라고 하죠. 모든 일에 반대를 하면서 물고 늘어지는 집단. 그들은 성소수자, 여성, 소수 민족의 인권과 같은 보기 좋은 허울을 쓰고 모든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죠.”

“그들이 이 연구에도 반대를 하고 있나요?”

“당연하죠. 그들은 모든 과학적 진보에 반대하니까요. 이곳을 기밀로 했던 것도 그 반대 집단 때문이구요.”

“집단 무의식에 접근하려는 걸 문제 삼는 것 같던데..”

“그렇죠. 집단 무의식에 접근하는 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들에겐 좋은 시뮬거리가 될 거예요.”

“단순히 시비라고 치부해도 될까요?”

“그들은 부정적 영향을 항상 과장해서 말하죠. 지금까지 그들의 과장되고 쓸데없는 기우에 얽어진 프로젝트가 한 둘이 아니예요.”

쇼펜이 붉게 끓어오른 얼굴로 말했다.

“쇼펜씨는 그들을 혐오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저는 그들이 진보를 쪼먹는 기생충이라 생각하죠. 후만씨 하나만 물어보죠.”

“네?”

“후만씨는 저희가 아니라면 인간이 영원히 집단 무의식에 접근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나요?”

“음. 아뇨.. 언젠가 하지 않을까요? 다른 누군가가 같은 방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맞아요. 항상 과학적 진보엔 시대적인 장벽들이 존재했죠. 각

시대마다 반대 집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 장벽들은 대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고집이 대부분이었고 과학적 진보는 항상 그 장벽을 꿰뚫어 왔죠. 교회가 아무리 지동설을 부정했어도 그것이 결국 천동설을 이겨낸 것처럼요.”

“집단 무의식 연구도 마찬가지란 거군요.”

“맞아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결국 집단 무의식에 접근할 거예요.”

“그런데 와일드는 이 연구 스폰서 얘기를 했어요. 그곳에 전달하려는 영상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구요. 연구 자체를 넘어서 연구 목적도 맘에 안 드는 것 같았는데..”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상론을 펼치며 그 가혹한 잣대를 모든 것에 들이밀죠. 그래서 결국 그들 눈엔 모든 게 밋게 보이는 겁니다. 와일드가 당신을 설득하며 했을 말이 자연스레 떠오르는군요. 분명 그는 이상적인 평등론 따위를 말하며 당신을 후퇴의 길로 인도하려 했겠죠.”

“평등에 대해 말하긴 했어요.”

“불평등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에겐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방법이나 자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죠. 후만씨는 다른 사람들과의 평등을 위해 진리 탐구를 포기할 수 있나

요?”

쇼펜의 물음에 후만은 와일드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와일드는 자기가 말하는 평등이 진리와 관련된 걸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건 그만의 생각이죠. 평소에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 저마다 모두 다르니까요. 저 또한 후만씨에게 제가 생각하는 진리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후만씨가 원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후만씨가 찾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진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후만은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다. 머릿속에 와일드의 말이 들어와 이리저리 헤집어 놓은 것 같았다. 연구소에 들어왔을 때의 명료한 정신과는 달리 생각 틈틈이 불순물이 박혀 있었다.

“그냥 머리가 복잡해진 것 같아요.”

후만이 눈에 붙인 손가락을 떼어내며 말했다.

“원래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회의감을 갖게 하는 것. 그건 결국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게 하죠. 하지만 전 후만씨가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후만씨의 엔진은 구

차한 도덕성이 아닌 공허감에 있으니까요.”

후만은 머릿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각들 중 어떤 것이 자신의 생각인지도 알기 어려웠다. 생각을 정리해보려 노력했지만 이리저리 더 엉켜버릴 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와일드의 처분이 궁금해졌다. 적어도 그것에 대해선 명료한 답이 내려져 있을 것 같았다.

“그럼 와일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연구소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향의 열정과 목표를 갖고 나아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목표는 모두 이 연구소의 목표와 부합하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연구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소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와일드 같은 불순물이 하나라도 끼면 순수함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쫓아냈다는 건가요?”

“네. 그의 개인적인 목표는 이곳과 부합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는 이곳의 존재를 발설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까지 했죠. 물론 이미 모두 압수해서 처분해버렸지만.”

“그럼 이제 이곳에서 와일드는 더 못 보겠네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단 무의식에 진입하는 실험이 시작되니까요.”

“전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죠?”

“후만씨가 먼저 집단 무의식을 탐사해준 덕분에 이제 다른 드리머들도 그곳에 진입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른 드리머들과 함께 실험에 참여해주시면 돼요.”

“그 영상을 집단 무의식에 갖고 가는 실험 말인가요?”

“네. 혹시 와일드가 한 말이 신경 쓰이나요?”

“아뇨.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머리가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다행이네요. 아 그러면 이제부터 진리 찾는 걸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원래 하고 싶었던 걸 하면 머리가 좀 맑아질 것 같은데.. 저희도 새로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구요.”

“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연구소 실험을 끝내고 바로 제 연구로 넘어 갈게요. 어차피 둘 다 집단 무의식에 진입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아주 좋아요. 모든 게 잘 마무리된 것 같네요.”

쇼펜의 얼굴엔 다시 미소가 자리 잡았다.

2.

“수신기 정상 작동 영상 출력 정상 수면 캡슐 온도 적정. 레코드 시작합니다.”

“후만씨. 잘 다녀오세요. 행운을 빌죠.”

후만은 쇼펜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잠에 들었다.

그의 몸은 점차 솜처럼 가벼워졌고 어지러운 꿈속에서 이리저리 훑날렸다. 이 느낌을 후만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 이름 짓기도 했었다. 그러나 꿈을 자각하기 시작하자 점차 의식의 무게가 잡혔고 이내 모든 것들이 선명해졌다. 그리고 후만은 선명도를 더 높이기 위해 꿈속에서 의식을 예리하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자각몽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의식을 제대로 부여잡을 수 있었다. 목표는 의식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리해진 의식은 꿈을 더 선명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었다. 혼돈이 가득한 집단 무의식에 진입하기 전 가장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었다.

후만은 첫 번째 목표를 영상 속의 이미지들을 집단 무의식에 투척하는 것으로 했다. 그래서 잠에 들기 직전까지 학습했던 영상의 이미지들을 떠올렸다. 이미지들은 후만이 꿈속에서 형상화한 태블릿에서 재생되었다. 후만의 계획은 그와 같이 객체화 한 이미지 덩어리를 집단 무의식에 던지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다음 순서는 집단 무의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 포털, 즉 월홀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후만은 공허감을 조금씩 떠올리며 그것이 새어 나오는 곳에 월홀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그가 공허감을 점차 확대해서 상기하자 월홀의 이미지가 더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월홀이 충분히 안정되자 우주복을 입은 후만은 한 손에 태블릿을 쥐고 그 안으로 진입했다.

집단 무의식엔 타인의 기억이 섞여 있기에 진입 저항이 강했다. 후만은 집단 무의식이 개인 의식에 간섭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선을 최대한 차단했다. 타인의 기억은 인식되는 것만으로도 자각몽 상태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질적 경험을 해석하는 것에 의식이 분산됐기 때문이다. 그는 집단 무의식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까지 모든 감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집단 무의식에 완전히 진입하자 후만은 그곳에 몰아치

는 폭풍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공허감이 만들어내는 기억의 폭풍은 후만의 선명한 의식을 흐트러 놓으려 했다. 그는 폭풍 속에서 휩쓸리는 기억의 조각들에 우주복이 빠르게 마모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후만은 손에 쥐고 있는 태블릿이 제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눈을 뜨고 손을 바라보았다.

태블릿에서 영상이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후만은 태블릿이 눈에 잘 보이게 손을 뻗은 뒤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제 태블릿을 손에서 놓고 이후의 경과를 관찰해야 했다.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집단 무의식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후만은 집단 무의식에 서서히 적응하기 위해 천천히 눈을 떴다.

손 위에 들고 있는 태블릿이 점차 후만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검은 배경에서 흩날리는 기억 조각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비교적 선명한 이미지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흐릿했다. 그것들은 마치 빠르게 돌아가는 만화경 속의 빛 조각들처럼 서로 겹쳐지고 계속해서 구조가 바뀌었다.

기억 조각들 중에는 후만과 함께 뱀숨을 타고 건너온 그의 기억들도 있었다. 그런 기억들은 비교적 선명해서 원형을 파악하기 쉬웠다. 그러나 그 기억들도 이내 파편화되어 다른 사람의 기억들과 겹쳐질 것이었다. 그곳에 들어온 기억은 더 이상 그 기억

을 흘려보낸 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후만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바라보다 이내 그것을 놓아버렸다. 영상이 재생되던 태블릿이 그의 손을 떠나자 형체가 조금씩 분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던 영상의 이미지들이 조금씩 새어 나오다 이내 날개 돋친 듯 퍼져 나갔다. 이미지들은 제멋대로인 호스에서 뿌려지는 물줄기처럼 질서 없이 여기저기 흩뿌려졌다.

그곳에선 보기 힘든 선명한 이미지들이 후만의 시야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이에 후만은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태블릿을 다시 잡으려 했다. 그러나 태블릿엔 이미 다른 기억들이 간섭되어 그가 손을 가까이 대려 할수록 더 큰 저항이 일어났다. 후만은 태블릿을 손에 다시 쥐더라도 자각몽 상태가 깨져버릴 것이라 확신했다.

후만은 결국 영상의 이미지가 집단 무의식 여기저기 흩뿌려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지들은 날개 돋친 듯 여러 갈래로 퍼져 나가는 것을 반복했고 파편화가 진행될수록 그 기세는 더 맹렬해졌다. 그러다 태블릿이 모두 다 분해되고 방사된 이미지들이 만화경의 수많은 조각들과 포개어지고 나서야 조금씩 잠잠해졌다.

후만은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곳의 다른 기억들과 함께 떠다닐 뿐이었다.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고 공허감이 그를 더 강하게 잠식했다. 그의 우주복 아랫부분은 마모되다 못해 이젠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었고 그 상태는 점차 그의 가슴까지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또 그렇게 후만의 형체가 모호해지는 것과 함께 그의 의식도 점차 흐릿해졌다.

그러나 후만에겐 다음 목표를 떠올릴 힘 따윈 남아있지 않았다.

3.

“왜 다음 목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나요?”

쇼펜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곳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의식을 부여잡는 게 힘들어져요.”

후만은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맨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음. 혹시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닐까요? 집단 무의식에서 연속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후만은 쇼펜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실 후만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쇼펜에게 말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목표로 직행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시도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어떤 상태에서든 그가 진리를 찾으려 하면 항상 자각몽 상태가 붕괴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었다.

진전될 기미 또한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후만은 더욱더 초조했다. 심지어는 진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접어들어 극도의 좌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그는 공허감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이 원하는 대답은커녕 곧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후만은 요 며칠 하루 종일 눈을 감고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실패한 기억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선 공허감에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그런데 고민 중에 계속해서 후만의 신경을 자극하는 게 있었는데 집단 무의식에 이미지를 처음 흡수시켰을 때의 기억이었다.

그 무질서한 기억은 후만의 의식을 단숨에 마비시켰고 이후엔 아예 마음속 담으로 자리 잡아 계속해서 저항을 일으켰다. 후만이 집단 무의식에서 진리를 찾으려 할 때마다 무거운 추가되어 그의 의식을 한없이 끌어내렸다. 또 그 기억은 후만의 의식에

너무나도 단단히 매여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떼어낼 수 없었다.

후만은 처음에 그 기억이 너무나 강렬하여 의식 속에서 지워낼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실험이 반복되고 영상을 집단 무의식에 흡수시킨 횟수가 늘어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영상의 이미지가 날개 돋친 듯 퍼져 나가는 광경도 점차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엔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후만이 갖고 있는 결론은 와일드였다. 문제가 되는 기억의 바닥엔 항상 와일드가 깔려 있었다. 와일드의 말은 옳고 그름을 떠나 후만에게 깊은 죄책감을 안겨줬다. 그는 집단 무의식에 처음 영상을 흡수시켰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해버렸다고 느꼈다.

후만은 죄책감을 달고 있는 한 끝까지 진리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죄책감을 떨쳐낼 수 있을지 매일 같이 고민하는 수밖에 없었다. 후만은 스스로가 말도 안 되는 모순에 빠져버렸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설 수 있을까요?”

후만이 오랜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휴가를 달라는 건가요?”

“네. 외출하고 싶은 건 아니구 그냥 잠시 연구를 쉴 수 있을까 해서..”

“머칠이 필요한가요?”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아요. 그럼 당장 내일부터 일주일인 건가요? 오늘은 어차피 다 갔으니까.”

“아 그럼 좋죠. 고마워요.”

“하하 아니에요. 그동안 드리머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휴가는 당연한 거죠. 또 후만씨의 컨디션은 우리에게도 중요하니까요. 근데 휴가 계획은 있나요?”

“잠시 쉬면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려구요. 그동안 연구한 것도 정리하면서..”

“오 혹시 정리가 끝나면 저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필요한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아마 계속 연구소에 있을 거니까요.”

쇼펜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그를 문밖으로 배웅해주었다. 후만은 쇼펜의 방에서 나와 그대로 자신의 방 침대로 향

했다. 그는 그곳에 온종일 누워 고민할 생각이었다. 고민하다 잠 들고 다시 이어 고민하고. 그가 문제를 해결할 때 자주 쓰던 방법이였다. 의식과 무의식을 교차로 사용하여 문제의 분해와 조합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짝 박혀버린 기억을 지워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그는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뒤척였다. 후만은 와일드가 미웠다. 와일드가 남긴 죄책감 때문에 자신에게 진리가 허락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공허감이 다시금 그를 강하게 옥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퍼뜨린 영상의 내용을 떠올렸다. 와일드에게 영상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이냐 캐묻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후만은 지금도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몰랐다. 그는 그 사실에 실소했다. 영상이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면서 죄책감을 느끼다니.

후만의 죄책감은 그 영상 때문에 피해 보는사람들과는 별 관련이 없었다. 그는 그저 와일드가 싫어할 행동을 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후만은 상당히 의아했다. 와일드와는 오랜 시간을 보낸 관계도 아니었고 지금은 옆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후만은 자신이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들과 와일드 간의 차이를 확인하면 왜 그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지 알



것 같았다. 일단 후만이 지금까지 가져온 관계는 모두 피상적이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보이지 않는 벽을 두었다. 후만은 사람들이 그 벽을 넘어오지 못하게 했으며 스스로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와일드는 조금 달랐다. 지루한 연구소에선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를 갖는 게 좋았다. 그리고 후만의 취미는 와일드를 이해해보는 것이었다.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는 독립하고 나선 자신의 부모조차도 그렇게 이해해보려 하지 않았다. 그런 후만이 직접 벽에 작은 문을 뚫고 힐끔힐끔 와일드를 바라봤던 것이다.

물론 그런 시도가 오래간 것은 아니었다. 와일드가 잡혀간 뒤 더 이상의 교류는 없었으니 그에게서 뭔가를 더 알아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후만의 마음은 여전히 와일드를 향해 살짝 열어 둔 문고리에 잔뜩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무리 안달해도 씻어낼 수 없었다. 오히려 안달하면 할수록 더 짙어질 뿐이었다.

그는 와일드가 자신을 용서해준다면 다시 진리를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와일드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또 설령 와일드가 있더라도 후만을 조건 없이 용서해줄지도 의문이었다. 와일드와 연성을 높이며 다뤘던 기억이 후만의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다.

막다른 길이었지만 후만은 와일드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결론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그 결론만큼은 모순적이지 않았다. 누군가를 잊기 위해 노력하는 건 모순이었다. 후만은 죄책감을 떨쳐낼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건 마치 공허감과 같이 그가 원치 않아도 불쑥 얼굴을 들이밀었다.

결국 후만은 와일드가 밭기보다는 연구소에 더 이상 와일드가 없다는 사실이 미워졌다. 그래서 한 번은 연구소에서 나가 와일드를 찾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후만은 와일드의 주소와 본명을 몰랐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와일드에게 용서받는 것. 후만은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생각해봤다. 와일드는 연구소가 하려는 일에 반대했다. 그러니 후만이 연구소로 돌아간다고 하면 와일드가 용서해줄 리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구소에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었다. 진리를 찾으려면 연구소의 도움이 절실했다. 후만은 또다시 막다른 길에서 오래도록 정체했다.

거듭된 고민에 휴가의 대부분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 고민들 때문에 후만은 한 번도 잠에 들지 못했다. 계속해서 침대에서 뒤

척이기만 할 뿐이었다. 그렇다고 억지로 잠에 들고 싶지는 않았다. 악몽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4.

“요. 후만”

“와일드..”

후만은 자신 앞에 서있는 와일드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잘 지내고 있나? 잘 지내면 안 되는데.. 내가 저주하고 있으니까.”

와일드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건 꿈이지?”

“맞아. 너의 꿈속. 오랜만이지?”

“오랜만이지 와일드.. 비록 내가 만들어낸 존재겠지만..”

“맞아. 근데 제법 비슷하군.”

와일드는 자신의 품을 이리저리 살피며 말했다.

“나는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나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겠지.”

“맞아. 그게 틀렸다는 거야?”

“아니. 틀렸다고 한 적은 없어. 하지만 난 너가 진리 찾는 걸 응원해. 너가 겪고 있는 고난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구.”

“근데 이미 죄책감이 마음속 깊게 자리 잡았어. 이젠 빼내지도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니 불행 중 다행이네. 역시 너에겐 희망이 있어.”

“희망? 뭘 소리야?”

“정신을 차릴 수 있는 희망. 넌 거기에 있는 너드들이랑 조금은 다르다 생각했거든.”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어쨌든 내 도움이 필요한 건 맞잖아?”

후만은 두 눈을 감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눈앞의 와일드를 찢어발겨 더 이상 떠오르지 않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후만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을 때조차 그의 앞에서 와일드가 아른거렸다.

“가짜인 너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긴 해?”

후만의 말에 와일드는 미소를 지었다.

“후만. 온전히 너 자신만의 꿈을 꾸지 얼마나 됐지?”

“나 자신만의 꿈?”

“그래. 어떤 외부 조건, 질서, 구조 따위엔 얽매이지 않은 너 자신만의 꿈. 너의 꿈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고 있어.”

“그렇지. 일단 너만 해도 꿈에 개입하다 못해 아예 그곳에 무거운 닻을 내리고 있으니까.”

“그래. 또 생각해봐. 너의 꿈에 개입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소 사람들을 말하고 싶은 거야?”

“그들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와일드가 팔짱을 낀 채 물었다.

“난 연구소 덕분에 집단 무의식에 진입할 수 있었어. 또 그들의 기술은 내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고..”

“넌 그것보다 더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어. 물론 그렇게 된 게 모두 너의 잘못은 아니지만.”

“무슨 뜻이야?”

“그들은 얼핏 보면 친절하 사람처럼 보이지. 하지만 그건 눈속임이야. 그들은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구조에 순응하지 않으면 어떤 개인적 목표도 이룰 수 없을 거라 세뇌하지.”

“저들이 날 도와준 건 사실이야. 연구소 덕분에 정제된 연구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넌 그저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야.”

“아니. 넌 이제 캡슐 속이 아니면 불안해서 잠도 못 자.”

“그건 캡슐 안에서 잠을 충분히 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나한테 통할 것 같아?”

할 말이 없었다. 후만은 이전의 모든 고민들에서 연구소가 없으면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 전제했었다. 그리고 고민이 거듭될수록 그 전제에 점차 무감각해졌다.

“이제 와서 도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후만이 와일드를 바라보고 말했다. 와일드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실패해도 온전히 자신만의 꿈에서 실패해야 덜 억울하지 않겠

어? 그 누구도 널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럼 넌 날 용서하겠다는 거야?”

후만이 말을 하는 와중에 와일드는 바람에 휩쓸리듯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인상만큼은 후만의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졌다. 미소를 잔뜩 머금은 와일드였다. 후만은 다시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자신만의 온전한 꿈이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은 뒤 진리를 찾겠다는 날카로운 목표를 세우고 공허감을 불러냈다.

후만은 연구소에서 트레이닝한 어떤 이미지도 불러내지 않았다. 웬홀도 불러내지 않았으며 구차한 우주복 따위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은 상태로 진득하게 공허감만을 계속해서 불러냈다. 공허감은 이내 후만의 주위를 휘감았고 그는 점차 자신의 의식이 마모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전처럼 그를 움짍달짝 못하게 끌어내리는 건 없었다. 후만은 그의 주위가 공허감으로 채워지는 것을 천천히 기다렸다. 그리고 이내 공허감이 충만해졌을 때 후만은 진리를 떠올렸다. 공허감을 떠올리면 공허가 찾아오듯 진리를 떠올리면 진리가 찾아올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진리를 갈망했다.

5.

그곳은 온통 흰색 빛으로 가득했다. 또 눈을 뜰수록 후만의 앞에 점차 분명해지는 실루엣이 하나 있었다. 그것의 완전한 형체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한 번에 눈을 다 뜨면 꿈에서 깰 것 같았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이내 후만은 그의 앞에 익숙한 모습의 한 남자가 서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구시죠?”

후만의 말에 남자는 입을 열었다.

“평소에 너가 생각한 신의 형상이지.”

“전 신을 불러낸 적이 없어요. 또 신을 믿지도 않구요.”

“신을 믿든 그렇지 않든 인간은 항상 그 개념에 영향을 받아. 사람마다 구체적인 정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머릿속 어딘가에 신을 형상화해놓고 있지.”

“그럼 당신은 제가 형상화한 신이라는 건가요? 근데 전 진리를 떠올렸는데 왜 당신이 나타난 거죠?”

“맞아. 내 젊음은 외형과 중후한 목소리 모두 너가 평소 신에 대해 형상화 해온 것들이지. 그리고 너가 진리를 떠올렸음에도 내



가 나타난 건 신과 진리가 서로 통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야.”

“서로 통하다니..?”

“너가 진리를 추구하는 거나 신자들이 신앙심을 갖는 거나 비슷하다는 거지.”

“두 행동 모두 공허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근원이 불분명한 공허감에 대응하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근원이 불분명한 개념이 필요한 법이지.”

“그럼 결국 두 개념의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당신이 나왔다는 건가요?”

“그렇지. 아무래도 형체가 없는 진리보다는 신과 대화하는 게 더 그럴듯하니까. 또 이곳에 진리가 없는 것도 아니야.”

남자의 말에 후만은 주위를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어딴죠? 여긴 당신과 저 그리고 흰색 빛밖에 없는데..”

후만의 말에 남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진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널리 퍼진 말이지. 너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미지이기도 하고.”

“이 흰색 빛이 진리라는 거군요.”

“그래. 겉으로 보기엔 다 같은 흰색이지만 사실 그 안엔 진리에 대한 온갖 생각들이 담겨있지. 너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사방에 가득한 거야.”

후만은 흰색 빛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집단 무의식의 다른 기억들처럼 서로 혼재되어 있어서 자세히 보아도 좀처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여긴 그냥 생각의 도가니 같은데..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당연하지. 다른 사람의 기억이니까. 다른 언어로 이뤄진 사고도 있을 것이고 너가 모르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기도 할 거야. 또 기억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

“어떻게요?”

“신은 진리처럼 태초부터 집단 무의식에 존재해온 개념이기에 이곳의 모든 기억과 연결되어 있지. 난 너가 형상화한 이미지지만 신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으니 이곳의 기억들을 너와 이어 줄 수 있어. 혼재해 있는 집단 무의식의 기억들을 재배치해서 너에게 알려주는 거지.”

“그럼 당신에게 진리에 대해 물어보면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너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을진 모르겠지만.”

후만은 그토록 찾고 헤매던 기회를 마침내 마주했다고 생각했다. 꿈속임에도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선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턱밑까지 올라온 강렬한 박동을 잠재우기 위해 숨을 크게 한 번 들이켰다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할지 고민했다.

후만은 오래도록 품어온 질문이 해결의 장소에 와서 단 수초만에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또 기대와 다른 답을 들을까 두렵기도 했다.

“참고로 말하자면 내 능력은 이곳의 생각들을 재배치해서 너에게 읊어주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무슨 뜻이죠?”

“난 그저 데이터 베이스일 뿐이라는 거지. 정보를 종합해서 새로운 답을 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당신은 정말 그냥 신의 형상에 불과하네요.”

“그렇지.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이곳엔 너희의 기억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니.. 또 누구의 기억이 있는데요?”

“의식을 가진 건 인간만이 아니니까. 집단 무의식엔 의식을 가진 모든 존재들의 기억이 담겨 있지.”

“그럼 동물들의 기억도 있나요?”

“물론이야. 하지만 지적 수준이 낮은 동물의 기억은 구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단 무의식에 들어와서 금방 파편화되지.”

“음. 그런 기억에서 도움을 받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지. 근데 집단 무의식에는 너희보다 더 역사가 오래되고 지적 능력이 높은 종족들의 기억도 담겨 있어.”

“다른 종족? 외계 생명체를 말하는 건가요?”

“외계 생명체도 있고 평행 우주 속에 존재하는 인류도 있지. 그들은 너희와 역사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 집단 무의식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서로 영향을 끼친 적이 있다니..”

“너희의 역사적 성취들 중엔 집단 무의식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 많아. 집단 무의식에 있는 선진 문명의 기억에서 힌트를 얻

은 거지.”

“다른 종족의 기억을 참고하는 게 가능한가요?”

“인간처럼 높은 지능을 갖고 있다면 가능해. 인간은 상징이나 맥락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지.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맥락을 통해 이해하는 것처럼 사고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완전한 이해는 어렵겠지. 그래도 영감을 받기엔 충분할 거야.”

“전 당신이 있으니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군요.”

후만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세상엔 진리라는 게 존재 하나요?”

“너희 인류는 아직 진리에 대한 정립을 내리지 못한 모양이라 다른 곳을 둘러봤어. 너희보다 진리를 오래 탐구한 곳들을. 그런 데 그들은 일단 진리를 이르는 말이 너희와는 좀 달라.”

“그게 무슨 뜻이죠?”

“그들은 너희가 진리라 하는 걸 다른 방식으로 불러. 음 그걸 다시 너희에 맞게 해석하면 바벨이란 단어가 적당하겠군.”

“바벨이요? 바벨탑 할 때 바벨을 말하는 건가요?”

“맞아. 사실 그들도 처음엔 너희처럼 이 세상을 주재하는 절대적인 명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점차 나아가면서 그 생각을 버리게 됐지.”

“진리가 없다고 결론 내린 건가요..?”

“아니. 그거랑은 조금 달라. 그들은 만물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명제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일종의 절대적인 지향성은 있다고 여기게 되었어.”

“절대적으로 어떤 지점으로 향한다?”

“언뜻 보기엔 진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존재해. 바로 예외의 유무지. 매 순간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와는 달리 지향성이라는 것은 그 과정 중에 예외가 존재하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예외가 존재하더라도 또 아무리 그 예외가 극심하게 나타나더라도 결국엔 한 지점을 절대적으로 향한다는 거야.”

“그 한 지점이 뭐죠?”

“바로 열림이야. 열림은 확장을 가져오지. 물질적인 형태로든 정신적인 형태로든. 그들은 우주의 만물이 열린 상태로 퍼져 나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향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가장 쉬운 예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들 수 있겠지.”

“우주의 팽창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우주는 다시 팽창하고 있어. 이건 너희도 최근에 발견한 사실이야. 물론 확장을 잠시 주춤한 시간도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다시 팽창을 가속하고 있어. 절대적 지향성이 적용된 거야. 이거 외에도 많아. 인간의 역사에서 닫힘을 고집한 곳들은 대부분 명맥을 이어가지 못했지. 반대로 열림을 추구한 곳은 계속해서 확장해갔고.”

“그 모든 게 절대적 지향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맞아. 근데 또 그들은 닫힘과 같은 예외 요소가 더 높은 수준의 열림을 위한 거름이 될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해.”

“무슨 말이죠?”

“극단은 항상 무너지게 되어있어. 이건 닫힘이 아니라 열림에도

적용되는 거야.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열림은 일정 수준의 닫힘을 필요로 하지. 열림만 너무 강조되면 그 어떤 생각도 숙성되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떤 게 열림이고 닫힘인지 어떻게 알죠?”

“그게 절대적 지향성이 바벨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이유야. 표어 하나를 보여주지.”

진리만큼 독재적인 것이 또 어디 있을까!

후만의 머릿속에 표어 한 구절이 스쳐 지나갔다.

“이건 그들이 진리를 경계하고 바벨을 지향하기 위해 만든 표어야.”

“진리가 독재적이다..?”

“진리는 태초부터 존재해온 유일무이한 가치라 여겨지지. 신이나 우주가 내려준 가치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진 진리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쥐어 주지.”

“이견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진리는 틀리다라는 걸 용납하지 않아. 틀린 게 있다면 더 이상 그건 진리가 아니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는 빈틈 없이 폐쇄된 방과 같아. 그런데 바벨은 이와는 달리 스스로의 빈틈을 인정하지.”

“열림과 닫힘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걸요?”

“맞아. 너 말대로 그 부분에 대해선 많은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 분명 혼란스럽겠지만 중요한 건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거야.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존재에게. 그들 모두 어떤 게 진정한 열림인지 고민하지. 집단 무의식은 그 고민의 장 중 하나야.”

“모두가 모여 열림을 지향하는 하나의 탑을 지어간다는 의미에서의 바벨인 거군요.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모두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각자의 생각만 내세우다 얼마 짓지도 못하고 무너져 내릴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탑을 지어가는 과정엔 일정 수준의 닫힘도 필요해. 하지만 그전에 함께 고민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그래야만 절대적 지향성에 어긋난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건 너무 어려워요. 뭐가 제대로 된 닫힘인지 잘못된 닫힘인지는 또 어떻게 알죠?”

“잘못된 닫힘은 진리의 환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진리가

아님에도 진리 행세를 하며 모순을 지적하는 자들을 비정상이라 치부해버리지. 제대로 된 닫힘은 스스로의 모순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 강조해.”

순간 후만에게 자연의 섭리라며 와일드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와일드는 그 말을 싫어했다. 그럼에도 후만은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못 박았었다.

“너가 바벨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진리의 환상에 물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 진리의 환상에 물든 자들은 확실히 정해지는 것이 없으면 극도로 불안해하지. 항상 정해진대로 살아왔으니까. 아직 너희 인류는 진리의 환상에서 허우적대고 있어.”

“결국엔 우리도 바벨의 길로 나아가게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바론 바벨로 나아가지 못한 문명은 오래가지 못했어. 문명 초기엔 몰라도 계속해서 진리를 고집하는 건 잘못된 닫힘일지도 몰라.”

남자의 말이 끝나자 후만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결국 그동안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그대로 들어버렸네요.”

“그런데 반대로 후련해 보이는군.”

“어쩌면 결국 들었어야 할 말인지도 모르죠.”

후만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가장 경계해왔다. 삶을 모조리 진리에 내던졌기에 진리가 없다는 건 삶의 탕진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지금 후만이 최후의 장소에 와서 선고의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뭔가 다음이 있을 것 같았다.

6.

후만은 눈을 떴다. 마치 방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 것처럼 정신이 말끔했다. 그는 그대로 침대에서 일어나 시계를 확인했다.

2:32

아직 새벽이었다. 후만은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또 미등만이 켜져 있어서 고요함이 더 짙게 느껴졌다. 후만은 복도 중간에서 잠시 이리저리 둘러보다 연구실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후만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또 아까부터 이어져온 긴장되는 감정이 점점 더 크게 요동쳤다. 그는 마치 연구소에 몰래 들어온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CCTV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기척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후만은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압박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 결국 연구소의 출입문이 있는 쪽에 이르렀다. 출입문을 보고 그는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를 떠올렸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연구소에서의 장면들이 그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이곳에 발을 들인 스스로가 갑자기 혐오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듯 오만함을 뽐내던 스스로의 모습이 더욱더 과장되어 상기되었다. 또 거기에 와일드와 다뤘던 기억까지 겹쳐지며 그는 순식간에 창피해졌다. 그러나 그 예겐 더 이상 핑곗거리가 되어줄 진리 따윈 없었다. 그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와일드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그리고 마침 출입문을 향해 직선으로 쭉 뻗은 복도가 후만의 투명한 눈에 비쳤다. 그의 발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이내 달음질로 이어졌다. 후만은 순식간에 복도를 지나쳐 출입문에 다다라 힘차게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철컻]

차가운 공기가 후만의 불을 반겼다. 시원했다. 방금까지 그를 괴롭혔던 창피함이 모두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새벽의 공기를 있는 힘껏 폐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자 그동안 마음속에 뜨겁게 응어리졌던 것들이 이내 차갑게 식어 내렸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닫혀버린 출입문을 훑어보았다. 이제 와서 보니 출입문이 무척이나 견고해 보였다. 후만은 이제 다신 연구소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연구소 앞에서 발을 뗐다.

후만은 한참을 걸었다. 시내의 연구소였기에 어디든 가기 좋았지만 그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집에 갈 생각도 해보았지만 금세 그만두었다. 어쨌든 그는 도망자 신세였다. 집에 간다면 그들이 금방 찾아올 것이었다.

정처 없이 걸으며 그가 계속 떠올린 것은 와일드였다. 와일드라면 방황하고 있는 자신을 받아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와일드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체단장에서의 허무한 마지막 인사가 더 아쉽게 느껴졌다. 만약 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의 본명과 주소를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후만은 기분 탓인지 누군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걷다가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고 또다시 걷기를 반복하였다. 그리고 이내 확신했다. 그를 따라 걷다가 뒤늦게 멈춘 듯한 소리가 고요한 새벽 거리에 메아리쳤기 때문이다.

후만은 점차 빨리 걷다가 결국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든 최대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나타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뒤에서 들려오는 달음박질 소리가 점차 더 가까워졌다.

[끼익]

검은색 세단 하나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후만의 앞에 섰다.

“타세요! 빨리 타요!”

운전석에 탄 여자가 조수석 쪽 문을 열면서 말했다.

“네?”

“뭘 머뭇거리요! 당신 쫓기고 있어요! 빨리 타요! 죽고 싶어요?”

후만은 고민도 잠시 자신을 옥죄어 오던 검은 숨결을 피해 얼른 차에 몸을 실었다. 차는 그대로 발진하여 앞으로 치고 나갔다. 후만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백미러를 쳐다보았다. 어두운 거리에 실루엣 하나가 우두커니 서있었다. 실루엣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그것이 후만을 향해 응사하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계속해서 선명히 느껴졌다.

## 4장. 각성

“당신들은 누구죠?”

“여긴 인권단체 릴리스의 본부고 저는 왓슨이라 해요. 이곳은 후만씨가 와일드로 알고 있는 애덤이 속한 곳이기도 하죠.”

“애덤이요? 와일드의 본명이 애덤이었나요?”

“네. 물론 스스로는 그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는 여기서도 와일드라는 이름을 쓰곤 했어요.”

“와일드는 그럼 어디에 있죠? 여기 있나요?”

왓슨은 눈을 지끈 감고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다.

“와일드는 이곳에 없어요. 돌아오지 못했죠.”

“돌아오지 못했다니.. 연구소에서 나가는 걸 분명히 봤는데.”

“아까 당신을 쫓던 남자에게 당한 것 같아요.”

“당하다니.. 죽었다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그가 지금 행방불명이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간 게 아닐까요?”

“아니요. 와일드가 가족들에게 향할 리는 없어요. 그는 가족들을 증오하니까요.”

“왜죠?”

“와일드의 가족들은 그를 버렸어요. 게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게이라구요? 동성애자?”

“와일드가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의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죠. 독실하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와일드가 게이라는 걸 알고 그를 내쫓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자식이 행방불명됐는데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같이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이미 말했는데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후만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행방을 알 만한 지인은 또 없나요?”

“와일드는 어렸을 때부터 배척되어 왔어요. 그에게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죠. 그런 그가 이곳에 돌아오지 않는 건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후만에게 꿈에서 만난 와일드의 모습이 떠올랐다. 특히 그의 마지막 미소가 클로즈업되어 더 선명하게 상기되었다. 꿈에서 만난 와일드가 상상이 아닌 정말 그의 영(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또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일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짝 메여왔다.

“당신들이 그를 연구소에 심은 건가요?”

후만이 물었다.

“네. 물론 그도 원했죠. 그는 희생적이었어요.”

“그의 임무가 뭐였죠?”

“와일드의 임무는 지그문트 연구소의 목적을 밝혀내고 증거를 수집하는 거였죠.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를 지키지 못한 거죠.”

“저는 어떻게 찾아낸 거죠?”

“우린 와일드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소에 접근했고 언론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연구소 주위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다 쫓기는 당신을 발견한 거죠.”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그곳에서 왜 나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마움을 느꼈다면 그곳에서의 와일드에 대해 말해줘요. 우리는 공백 속에서 와일드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와일드는 저에게 연구소의 목적을 말해줬어요. 이성애 남성 중심 구조를 강화한다는.. 그리고 그건 집단 무의식에 그 구조와 직결된 기억을 심는 걸로 이뤄지는 거였죠. 집단 무의식에 그런 기억들이 심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갈 거예요.”

왓슨은 한숨을 쉬었다.

“이젠 그런 방식까지.. 그럼 와일드는 왜 잡힌 거죠?”

“와일드는 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할 때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꼬리를 밟히게 되었죠. 그는 저에게 연구소에 대해 폭로하고 바로 잡혀갔어요.”

“와일드..”

왓슨은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눈가를 닦아 내렸다. 슬픔을 삼키는 소리에 후만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손을 만지작거리다 입을 열었다.

“제 잘못이에요.”

후만의 말에 왓슨은 붉은 눈시울로 그를 바라봤다.

“제가 그들의 실험을 성공시켰어요. 집단 무의식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이런 젠장.. 당신이 뭘 짓을 한 건지 알아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건 죄가 되겠죠. 정말 미안해요..”

그 뒤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후만은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에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다. 후만은 그곳에서 위로를 건네지도 함께 울지도 못하는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왜 나오게 된 거죠? 말해줄 수 있나요?”

왓슨이 울음을 삼키며 물었다.

“창피했어요. 저는 모순이 가득했지만 오만했죠.”

“와일드가 당신을 바꾼 건가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저 바뀌고 싶다고 느낄 뿐이죠. 지금도 전 와일드가 한 말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지는 못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하죠. 여기 사람들도 모두 여성 혐오, 동성애 혐오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당신은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염치없지만.. 전 이곳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또 함께 하고 싶어요. 와일드가 어떻게 됐는지도 밝혀내고 싶구요.”

“저희는 열려 있어요. 후만씨가 바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럼 릴리스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나요? 와일드가 어떤 곳에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알았어요. 일단 우리는 모순적이고 독재적인 이성애 남성 중심 구조에 극렬히 반항해요. 대화론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연구소에 스파이를 보낸 거군요.”

“맞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구절을 하나 보여드리죠.”

이성애 남성 중심 구조의 명에는 너무 무거워서 극단적인 주장을 해야만 겨우 조금 움직일 수 있다.

“중국의 지식인 후스가 한 말을 각색한 거예요. 릴리스 사람들 모두가 이 구절에 크게 공감하죠.”

“저는 두 번 연속으로 급진적인 집단과 교류하게 되네요.”

“아뇨. 후만 당신은 처음부터 급진적인 집단에 있어 왔어요. 연구소만 급진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 사회조차 차별을 조장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급진적인 이론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죠.”

“피해자는 기억하고 있는 거군요.. 가해자가 잊어버린 것들을.”

“그들은 심지어 자기가 가해자인지도 몰라요. 고정관념을 당연하고 정당한 거라 여기니까. 오히려 그들은 제도에서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갈등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후만 또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그저 떼쟁이에 불과하다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 통례에 의해 사냥되는 것을 보며 안정과 쾌감을 느꼈다. 심지어는 떼쟁이들이 최대한 통과하고 잔혹하게 심판받길 바랐다. 그건 그에게 하나의 오락 거리였다.

“저는 스스로를 방관자라 여겼지만 사실은 사회의 편이였는지도 몰라요. 전 갈등이 진압되는 쇼를 즐겼으니까요. 쇼를 즐길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중립이 아니라는 거겠죠.”

“릴리스에도 그랬던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럼 릴리스의 최종 목표는 뭐죠? 만인의 평등을 이룩하는 건가요?”

“저희는 우선 모순으로 가득 찼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성애 남성 중심 구조를 붕괴시키고 싶어요.”

“근데 어떤 점이 모순적인 거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게..”

“시작부터 말하는 게 좋겠군요. 모든 비극은 남성이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폭력으로 형성된 지배 관계는 지배자들에 의해 점차 형이상학적 지배 관계로 바뀌었죠. 이젠 무력 대신 자연의 섭리나 사회적 통념과 같은 것이 지배를 정당화해요.”

“추상적인 지배 구조가 더 해체하기 어려운 법이니..”

“맞아요. 하지만 그 구조엔 모순이 존재해요. 남성들은 자신들만의 요새를 지었지만 그들은 요새 밖으로 쫓아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종족을 보존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섹스를 원하죠.”

“중요한 걸 의존하고 있군요.”

“그래서 그들은 성욕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남에게 중요한 것보단 값싼 걸 의지하는 게 권력을 유지하기 좋으니

까요. 그래서 그들은 창녀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이 하나 더 생겨나죠.”

“그게 뭐죠?”

“바로 자신이 비릇된 자궁의 가치예요. 여성의 가치를 깎아내리  
면 당연히 어머니의 가치도 깎아내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  
은 어머니와 창녀를 구분 짓고 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하  
죠.”

“남성에 의해 가치 지어지고 갈등 붙여지는 거네요..”

“정확해요. 이걸 남자들이 결혼할 여자와 즐길 여자를 구분하는  
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들은 둘을 다르게 가치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치 매겨지는 건 물건  
과 다를 바 없죠. 여성은 결국 상품화되어버린 거예요.”

“무력 차이로 시작된 관계가 여기까지 온 거네요.”

“맞아요. 이제 지배자들은 남자가 이런 업적들을 떠들며 남성이  
여성보다 정신적으로 우월하다 여기죠. 그들은 여성은 이성적이  
지 못하고 위태로운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쇼펜이 떠오르네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정신적으로 조금 다  
를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다름이 이성애 남성 중심 구조에서 비롯된 거라면 어떨까요? 남성에게 가치 지어지고 핍박받는 생애를 산다면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나요?”

“트라우마를 말하는 거군요.”

“그래요. 사회에서 말하는 ‘여자는 원래 그래’라는 말은 가해자인 스스로를 배제한 무책임한 발언인 거죠.”

“동성애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혐오의 대상인데.”

“동성애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위험하죠. 먼저 요새 안에 게이가 있으면 남성도 여성처럼 성적 대상화될 수 있어요. 이걸 이성애 남성의 지위에 위협이 되는 일 이죠. 그래서 요새에선 동성애를 혐오하고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정 안 되겠으면 남성을 여성으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대신했죠. 계집애 같은 놈, 남자 망신시키는 놈.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음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여성이 남성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자기애를 경계하는 것과도 일맥상통

하죠. 만약 여성이 남성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남성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가부장제에선 여자가 남자를 필요로 하게끔 끊임없이 선동하죠. 결혼한 여자에겐 화관을 씌우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겐 가시관을 씌우는 식으로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나요?”

“아뇨.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해결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현대 여성에겐 소위 말하는 여성적 가치를 가지면서도 남자에 견줄 만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야 한다는 이중 부담이 주어졌어요. 만약 해내지 못하면 사회에선 ‘역시 여자는 안돼’라는 말을 내뱉죠.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만 배려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와일드가 인류의 절반 이상이 고통받고 있다고 한 거군요.”

“사실 넓게 보면 모든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이어져 온 왜곡된 구조에 수많은 가능성들이 파묻히고 있으니까요.”

“잘못된 상태로 닫혀 있다..”

후만은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다.

“그럼 릴리스의 계획은 뭐였죠? 와일드가 증거를 가져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데요?”

후만이 물었다.

“저희는 지그문트 연구소를 고발하려 했어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였죠.”

“그다음은요?”

“저희도 집단 무의식에 기억을 심으려고 했어요. 보류해둔 계획이지만.”

“왜 보류한 거죠?”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우린 그곳에 심을 강력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후만씨는 연구소에서 집단 무의식에 심은 영상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죠?”

“와일드가 말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TV나 영화에서 비슷한 장면들을 자주 보기도 했구요.”

“맞아요. 남성 중심 사고를 일으키는 이미지들은 만들기 쉬워요. 널리고 널리었으니까요. 남성 중심적인 언어, 매체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이미지들 너무나도 속속들이 우리에게 박혀 있어 도무지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알 수 없어요. 차라리 새로 태어나는

게 나올 정도예요.”

“이성에 남성 중심 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미지나 영상을 구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우리는 남성 중심 사고에 너무나도 깊게 몰들어버렸어요. 그것을 배제하고는 그 어떤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요. 일례로 우리는 평등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들이 중심이 되는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죠.”

후만은 쇼펜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상상하지 못하면 그것에 도달할 수도 없다. 기존의 선입견에 얽매여 새로운 생각이나 구조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었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요?”

왓슨이 후만을 보고 말했다.

“네. 사실 연구소에서 나오기 전에 한 가지 큰 발견을 했어요. 아직 연구소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집단 무의식엔 인간의 기억만 있는 게 아니예요.”

“인간의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니.. 그럼 또 누구의 기억이 있는 데요?”

“그곳에는 의식을 가진 모든 존재들의 기억들이 담겨 있어요. 동물들의 기억도 있고 심지어 외계인이나 다른 차원의 인류가 흘러보낸 기억들도 존재하죠.”

“거기까진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당연히 인간의 의식만 연결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전 그곳에서 다른 존재들의 생각을 듣고 연구소에서 나오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곳에는 저희보다 더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여러 문명들의 생각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생각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됐죠.”

“그게 인류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나요?”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먼저 마주하고 풀어나간 문명이 존재할 거예요. 또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평등한 사회를 이미 이룩한 문명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들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들은 우리와는 달리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은 생각만큼 강렬한 건 없죠.”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에 함부로 접근하는 건..”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그 계획을 보류한 이유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와일드가 사라지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죠. 우리는 더 급진적으로 반항하기로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구해져야 하고 언젠가 반드시 구해질 사람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구해내야죠.”

“언젠가 반드시 구해질 사람들.. 긍정적이네요.”

“저는 지금 우리가 반쪽짜리도 안 되는 가능성만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와일드가 새로운 에너지를 보내줬네요. 우린 많은 걸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빨리 꿈을 꾸고 싶어요! 다음 꿈은 더 선명할 테니까요.”

**End.**

